

예장순장 제60회 총회장 지태영 목사 당선 부총회장 이재성 목사, 박종선 장로 선출



대한예수교장로회(순장)총회는 지난 9월 17일~18일 경기도 용인시 백암수양관에서 순장교단 제60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지태영 목사(사진·한빛전원교회)가 총회장에 당선됐다.

이날 총회에 앞서 총회장 유영섭 목사 인도로 1부 예배가 시작되고, 부총회장 지태영 목사가 기도를, 마16:1~4절 말씀을 주제로 유영섭 총회장은 “분별력 있는 성숙한 총회”라는 제하의 말씀을 선포했다.

유 총회장은 “기독교와 한국교회가 내적인 분열과 외부세력의 혼들기로 중심이 흔들리고 있는 지금 오직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위기 속에 쓰임 받는 총회가 되어야 한다”며 “교회를 교회답게, 기독교인이 세상의 빛이 되도록 하는 일에 우리 총회가 앞장설 것”을 강조했다.

이어 총회장 유영섭 목사 집례로 성찬식을 갖고, 서기 강철 목사의 광고가 있는 후 총회장 유영섭 목사 축도로 마쳤다.

이날 순장 제60회 정기총회가 개회선언되고, 각부 보고에서 서울성경신학대학원대학교 이사장 전종현 목사, 총장 노왈수 박사는 각각 신학교에 대해 보고를 하고, 백암수양관, 학교법인순장학원, 서울성경신학대학원대학교에



대해 보고하는 자리에서 특히 백암수양관 매각 건에 대해서는 매각위원회에서 꾸준한 진척사항에 대해보고 했다. 따라서 노왈수 총장은 성경신학대학원대학교의 발전과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협조를 요청했다.

2012 제60회 정기총회에서 투표(記名)로 당선된 신임원은 다음과 같다.

총회장 지태영 목사(한빛전원교회), 부총회장 이재성 목사(신천교회), 박종선 장로(동천교회), 서기 강동민 목사(창대교회), 회의록서기 김일수 목사(동선교회), 회계 김인근 장로(송덕교회), 부회계 최명철 장로(성산교회) 등이 당선되었으며, 이어 각부 부장과 부부장 선출도

기명(記名)으로 투표하여 시찰부장 엄광일 목사(한사랑교회), 부부장 박점수 장로(안전교회), 선교부장 손종필 목사(늘푸른교회), 부부장 김영대 목사(영암교회), 부부장 김은태 장로(동천교회), 교육부장 강철 목사(대천교회), 부부장 서명법 목사(공덕교회), 고시부장 지태일 목사(새빛중앙교회), 재단부장 추영조 장로(신천교회), 부부장 한명학 장로(대천교회), 재판국장 윤정현 목사(해맞음교회) 등이 당선됐다.

이날 신임총회장 지태영 목사는 “입 큰 사람이 되지 않고, 꿈 큰 사람으로, 간이 큰 사람은 위험해도 통 큰 사람이 될 것이며, 꿈도 야무지게 꾸며, 큰 비전을 갖고 한 회기를 시작하는

데 있어 총대들의 많은 기도와 격려를 부탁”했다.

지태영 총회장은 또 ‘교단산하 모든 지 교회가 살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 신바람 나는 한 회기가 되도록 각 노회가 힘을 모아달라는 부탁과 함께 “작은 모습으로 시작하는 저를 위해 부족한 부분들을 많이 채워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임원들과 함께 멋지게 이 한 회기가 힘찬 총회로 비상할 것”이라며 당선 소감을 피력했다.

한편 2013년 제61회 차기 정기총회 장소는 임원회에 위임하고, 폐회를 선언하여 총회장 지태영 목사 축도로 마쳤다.

사설

각 교단 총회는 끝났는데... 1+1=3

우리나라는 교계가 가장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장 문제거리가 되어가고 있다. 그레도 뜻이 있는 분들이 있어서 작은 교단들이 합하고 큰 교단도 합하여 하나가 되고자 하는데 합하고 보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곤 하였다. 옛날 발명왕인 에디슨이 어렸을 때에 학교에서 선생님이 산수를 가르치는데 1+1은 2라고 하는데 에디슨은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있다가 아니예요 1+1은 1 이에요 라고 하였다 한다.

선생님은 설명을 해 주는데도 에디슨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선생님에게 왜 1+1이 하나가 되는가 하면, 물 한방울과 물 한 방울을 합하면 역시 한 방울의 물이라고 하며 우기는데 선생님은 그래도 1+1은 2라고만 하였다 한다. 오늘 날 우리들이야 말로 어린 에디슨의 계산법을 배워야 진정한 합동을 이룰 것이다. 그런데 하나와 다른 하나가 합하면 그 교단들에서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어 1+1이 3이 되는 것이다. 그럴 바에야 합할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合同纠纷一案의 한문을 보면 습의 여덟(八)이 하나(一)의 입(口)이 되고, 同이라는 말은 몇 경(冂)이 하나(一)의 입(口)이 된다는 뜻이니, 여덟이라도 하나가 되고 서로 먼 거리나 다른 의견이라도 하나가 되어야 진정한 하나가 되거늘 허구한날 합한다는 말은 나오는데 교단은 자꾸 갈라져가고 있으나, 그야말로 합동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교단자체가 그 gkqehjd이라는 말을 알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고서야 어찌 당단의 설교가 권위가 서며 그 말이 진실하겠는가? 교회가 조금 커지면 목회자의 목이 먼저 굽어지고 교단이 조금 커지면 세상적으로 나가려는 모습이 더욱 강해지는 것을 얼마든지 볼 수 있다. 지금 한 쪽에서는 기독교 개혁을 위하여 운동을 벌이는 뜻있는 단체를 만들어 개혁해 보려는 이들이 있다. 물론 큰 교회가 아닌 작지만 보다 진실하게 주님의 뜻을 행하여 보려는 분들의 모임이라라. 점점 확산 되어갈 것이라 사료된다.

이제 각 교단의 총회가 끝났다. 각 교단에서는 교인들과 세상 사람들이 본받고 따라야 할 목회자로서 제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그리고 교단적으로도 합한다는 명목으로 상대 교단을 속여 세만 늘리려는 꼼수와 수단과 방법들도 있어서는 안된다. 또다시 갈라지고 나뉘어지며 더 많은 상처만 남기 때문이다. 합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조건 없이 서로 받아주고 자존심 생각 말고 들어가는 것이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레 하나가 되어갈 것이다. 오랫동안 주님을 증거하고 전한 목회자들 또 주님의 종으로서 그만큼 주 예수님을 더 많이 알아야할 것이다.

세상적으로는 1+1은 2이지만 지금까지 교단이 합하면 1+1이 3이 되었던 추악한 일들이 다시는 없도록 할 것이며 1+1은 1이 계속되어지는 합동으로 우리 기독교계가 진정한 하나가 되기를 바란다.

적어도 카톨릭에서 종교개혁하여 나온 기독교라면 그들 보다는 더 나아갈 것이 아닌가?

예장합동 제 97회 총회 폐막, “시작부터 날선공방”

정준모 총회장 취임사를 통해 ‘10대 성취 과업’ 발표

목사 부총회장 안명환 목사, 장로 부총회장 남상훈 장로 당선

예장 합동 제97회 정기총회가 17일 오전 대구 성명교회에서 개최되어 총회장에 정준모 목사(대구 성명교회·사진)를 추대하고, 부총회장에 안명환 목사(수원 명성교회)가 당선됐다.장로 부총회장에는 전주 삼례동부교회 남상훈 장로가 선출됐다.

정준모 총회장 취임사를 통해 ‘10대 성취 과업’ 발표

정 목사는“새로운 100년의 비전 성취를 위

해 온 심혈을 기울이겠다”며 10대 성취 과업을 발표했다.

10대 과업은 ▲WCC신학과 운동을 단호히 배격하고 칼빈주의 개혁신학의 정체성을 대내외에 선포 ▲총회 개혁을 위한 3R(개혁, 갱신, 부흥)운동 전개 ▲총회본부의 투명한 운영 ▲치리회 권징의 권위 회복 ▲이단과의 전쟁 선포 ▲교단 내외 정치적 갈등과 분열의 종식 ▲총회 산하 기관의 활성화 ▲미자립교회 자립



위한 대책 마련 ▲총회세계선교회(GMS) 문제 해결 ▲활발한 모금과 투명한 지출 등이다.

총회가 개막된 가운데 ‘총회설립 100주년 기념 감사예배’를 드렸다.

예배는 서기 김형국 목사의 사회, 남상훈 장로부총회장의 기도, 정준모 총회장의 설교, 이완수·심판구·권영식 장로(증경 장로부총회장)의 감사·결단·비전

기도 순서로 진행됐다. 이후는 내빈들의 축사 및 격려사 등으로 진행되었다.

‘100년을 넘어 또 다른 100년을 주실 영광’을 제목으로 설교한 정준모 총회장은 “지난 100년 간 총회를 세우고, 지켜주신 성삼위 하나님께 깊은 감사와 영광을 돌린다”며 “모든 회무를 잠시 멈추고 새로운 100년을 꿈꾸며 비전의 돌비를 세우고자 이 자리에 모였다”고 100주년 예배를 드리는 소감을 말했다.

(3면에 계속 >>)

스마트폰 QR코드로
 지저스타임즈를
 볼 수 있습니다.



축

대한예수교
장로회

순장총회 제60회 임원

총회장 지태영 목사

총회장 지태영 목사
한빛전원교회

총장 노왈수(D.R.E)

총장 노왈수(D.R.E) 박사

부총회장 이재성 목사 신천교회	부총회장 박종선 장로 동천교회	서기 강동민 목사 창대교회	회의록서기 김일수 목사 동선교회	회계 김인근 장로 송덕교회	부회계 최명철 장로 성산교회	시찰부장 엄광일 목사 한사랑교회	시찰부부장 박점수 장로 인천교회	선교부장 손종필 목사 늘푸른교회	선교부부장 김영대 목사 영암교회	선교부부장 김은태 장로 동천교회
교육부장 강철 목사 대천교회	교육부부장 서명법 목사 공덕교회	고시부장 지태일 목사 새빛중앙교회	재단부장 추영조 장로 신천교회	재단부부장 한명학 장로 대천교회	재판국장 윤정현 목사 해맞음교회					

제 60회기 총회

성장하고 부흥하는 총회로...

2012년 신임원들은 총회장 지태영 목사를 중심으로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총회장 지태영목사의 임원 일동

총회 (순장)

서울성경신학대학원대학교

(156-853) 서울시 동작구 신대방동 632-57 Tel : (02) 845-7711 / Fax : (02) 844-7711

Home page 문의 : (041) 853-9966 / E-mail : lov153@naver.com

4개 개혁신합 총회장에 임장섭 목사 선출

4개 교단 통합 총회로 모여... “한교연 이단 관련 결정 존중”



예장개혁신합총회(총회장 임장섭 목사) 제97회 통합총회가 4개교단 총대 230여명이 서울 강북구구 송천동 소재 소망교회당(장근태 목사)에서 지난 18일 오후 2시에 열렸다. 통합총회 헌법과 총회규칙, 선거법 등은 ‘헌법 규칙제정위원회’(위원장 황호관 목사)가 새로 97회기 중에 발전적으로 제정하여 새 기틀을 마련키로 했다.

75세 정년 연장 문제와 여성인수 허용 건도 함께 다뤄 총회헌법을 만들 때 집중 논

의하여 포함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계속 신학과 신앙이 같은 형제 교단과의 합동 건은 문호를 개방하여 총회합동영인노회정비전권위원회(위원장 신용현 목사)에 맡겨 다루기로 했다.

교단의 목회자 양성 총회인준신학교는 대신대학원대학교(총장 황원찬 목사)로 최종 결의했다. 또한 이단대책위원회(위원장 한정덕 목사) 보고에서 한교연 바른신앙수호위원회(위원장 정근두 목사)에서 결정하

이단관련 결정은 한교연의 결정을 적극적으로 존중하여 보고로 받고 계속 이단대책위원회에 맡겨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4개교단 통합총회는 8월 9일 5개교단 총회장이 통합에 서명하고 미아소망교회서 통합총회로 회집했으나, 참여 교단 중 국제개혁 측(당시 총회장 황인찬 목사)이 교단내부 사정으로 이기태 총회장 측이 총무 문제로 일부가 참여지 못해 실질적으로 4개 교단이 통합 한 것으로 나타났다.

4개 교단 통합총회 신입원은 다음과 같다.

총회장 임장섭 목사, 부총회장 박영길 목사, 이강욱 장로, 서기 서용진 목사, 부서기 이계서 목사, 회록서기 하영진 목사, 부회록서기 손일동 목사, 회계 김준길 장로, 부회계 최재호 장로 등이다.

이날 신입총회장 임장섭 목사는 “교단의 새로운 기틀을 마련하는데 힘을 것”이라며 인사를 하고, 한 회기동안의 총회가 나아갈 방향과 포부를 밝혔다.

첫째, 제97회 총회 기간 중 해결해야할

각종 현의 안에 대해서, 둘째, 통합전권위원회에서 보고되고 받아들여지는 각종 특별위원회 활동을 최대한 지원하고, 셋째, 현재 본교단의 교계에서의 위상을 점검하여 타 교단과의 연합운동과 연합 사업에 적극 참여, 넷째, 교세확장을 위해, 다섯째, 교단의 사활은 무어니 해도 전국교회 목회자들의 영성회복, 여섯째, 주님의 지상명령에 따라 민족복음화와 북한 동남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땅 끝까지 세계 선교하는 총회가 되도록 힘쓰겠다는 다짐과 함께 취임사를 했다.

아울러 통합전권위원회 위원 및 총대 일동은 한국 장로교단 총회 설립(1912년) 100주년을 기념하는 이번 제97회 총회를 맞이하여, 신학과 신앙이 일치한 우리 형제 교단들은 한국교회와 본 개혁교단에 주신 시대적 사명에 충실하기 위해, 과거의 교단 분열이라는 부끄러운 역사를 반성하고 분열의 아픔도 극복하면서 흠어진 역량을 결집하기 위해 이렇게 함께 모였단면서 합동 선언문을 낭독했다.



신·구원원 기념촬영

예장대신총회 총회장 황수원 목사 선출

부총회장 최순영 목사 “섬기는 마음으로 총회를 위해 헌신을 다짐”



우측 총회장 황수원 목사, 좌측 부총회장 최순영 목사

어도 총회의 일부 이기주의적 집단과, 교권정치를 하는 인사들로 인해서 한명의 헌부총회장을 놓고 총회장 선거를 진행하며 자신들의 이익에 반하면 탈락시키는 관례가 이어져 왔다.

실례로 대신측 내부에서는 부총회장 선거보다 한명의 헌부총회장을 놓고 총회장 선거하는 것이 더욱 어려운 일이라는 견해가 상례적으로 작용하며 여러 불합리와 부조리를 앙상해 왔다. 특히 헌부총회장이 총회장 선거에서 정치적 야합과 총대들의 지지 득표를 얻지 못해 탈락되는 전례를 남기기도 했다. 결국 총회장 선거를 공개적으로 다수의 후보자들이 참여하는 선거를 변경을 하지도 못하면서, 결국 부총회장 시절에 교권을 잡은 일부 정치꾼들의 눈 밖에 나면 총회 현장에서 탈락되는 수모를 면키 어렵게 하며, 정치적 야합을 도출해 왔었다는 지적이다.

총회장 황수원 목사는 그 첫 마디에서 “이번 총회장 선거를 앞두고 많은 근심과 걱정이 앞섰으며, 현재 지고 있는 총회의 40억원의 빚을 생각하면 늘 어깨가 무거웠다”면서, “총회장 선거에서 떨어질 것도 생각을 해서 마음의 준비도 하고 있었다”고 했다.

지난번 “선거에서 두 번 낙선했을 때만

해도 도망 갈려고도 했으며, 교단정치에 회의를 느껴 교단을 떠나는 것을 생각도 했으나, 사모로 내조하는 나의 아내가 대신에 남게 됐다”면서, “대신의 모든 이들을 가슴으로 안고 품으며 새롭게 전진하는 47회기 총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신입 총회장 황수원 목사와 부총회장 최순영 목사(두란노교회)는 교계 언론을 대상으로 기자회견에 참석을 했다. 이 자리에서 총회장 황수원 목사는 총회장 선거의 문제점을 지적한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 “대신총회가 총회의 헌법과 법규 관심을 기울여, 부총회장 선거는 경선을 통해서 올바른 사람이 선출하고, 부총회장이 총회장으로 추대를 인준의 방식이 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법규를 정비하겠다”라고 설명을 했다.

부총회장 최순영 목사는 “섬기는 마음으로 총회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이 되겠다”면서, “총회장을 잘 보필해서 대신총회가 더욱 성장과 발전을 거듭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소감을 피력했다.

회장에서 총회장으로 추대하는 인준의 정신이 아닌 체제를 이어와 일부 마음에 맞지 않는 노회나 교권정치인들로 인해서 총회장 선거에 많은 부작용을 표출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다.

이어 황수원 목사는 “선관위 법규와 총회의 헌법과 법규정을 개정하는 일에 적극 관심을 기울여, 부총회장 선거는 경선을 통해서 올바른 사람이 선출하고, 부총회장이 총회장으로 추대를 인준의 방식이 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법규를 정비하겠다”라고 설명을 했다.

부총회장 최순영 목사는 “섬기는 마음으로 총회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이 되겠다”면서, “총회장을 잘 보필해서 대신총회가 더욱 성장과 발전을 거듭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소감을 피력했다.

제 19대 국회의원 대상 공공정책 및 종교에 관한 의견 및 인식 조사 결과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총재 김삼환 목사)는 현재 한국사회의 공공정책 및 종교 관련 의견을 수집하여 공공정책 및 종교에 관한 의견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제 19대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19대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공공정책 및 종교에 관한 의견 및 인식 조사를 실시했다.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한 기독교 공공정책 인식도 조사는 한국 교회에서는 처음으로 실시한 것으로 그 의미가 크다.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는 지난 2월 부터 활동을 시작했으며, 지난 4.11 총선에서는 여야 정당에 우리나라의 공공정책과 기독교 공공정책을 제안해 양당으로부터 긍정적인 회신을 받은 바 있다.

이번 조사결과에 따르면 우리 사회의 주요 공공정책 중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로는 ‘빈부 격차 심화에 대한 양극화 해소’가 48.1퍼센트, ‘청년실업 증가에 대한 청년 실업률’이 40.1퍼센트, ‘저출산 현상에 대한 출산장려’가 24.3퍼센트 순이었다.

‘종교단체와의 협력을 통한 출산장려 정책 시행의 저출산 현상 개선 도움’에 대한 질문에서는 63.8퍼센트가 종교단체와의 협력이 도움이 될 것이라 답했으며, ‘종교의 자살예방도움 정도’에 대한 질문에서도 도움을 준다는 응답이 88.5% 차지했다.

특히 ‘낙태에 대한 찬반’을 묻는 질문에서는 ‘낙태를 반대한다’는 응답이 75.1%, ‘동성결혼에 대한 찬반’을 묻는 질문에도 ‘동성결혼을 반대한다’는 의견이 64.1%로 나타나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에서 요구하는 공공정책의 방향성과 일치하는 경향으로 조사됐다.

공무원의 종교활동 자유에 대해서는 80.9퍼센트가 ‘종교활동을 제한해서는

안된다’고 응답했다. 종교를 고려한 진학-종교대학교 자율선택-에 대해서는 57.9퍼센트가 찬성했다. 이는 한국 교회가 종교사학에 대한 건학이념을 지키기 위해서는 종립학교에 대한 학생선발권 부여 또는 종립학교에 대한 학생들의 지원 그리고 후 추첨을 바라고 있는 것과 같은 경향이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종교자유정책위원회의 종교차별실태조사의 불교관련 기관 진행에 대한 인식도 조사에서는 43.6퍼센트가 ‘문제가 있다’고 응답했다.

또한 기독교의 근현대 역사적 기여와 현재 사회적 기여를 인정하는 경향이 높았으며, 이와 연계하여 근대 기독교 문화유적지의 문화재 지정 보호에 대한 찬반 질문에는 63.7퍼센트가 찬성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정부차원에서의 기독교 역사박물관 건립에 대한 찬반에서는 56.7퍼센트가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밖에 교과서 서술, 문화재 지정 등에도 호의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번 조사와 관련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 총재 김삼환 목사는 “국회의원들이 개화기 한국의 교육, 의료, 복지, 한글 보급, 독립운동, 민족적응에 크게 기여했고, 6.25 이후 폐허가 된 나라의 상황에서 민주화와 산업화에도 크게 기여한 한국 기독교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감사하게 여긴다.”고 말했다.

공동대표회장 전용태 변호사는 이번 조사를 통해 “다종교 사회에서 각 종교의 역할과 함께 근현대문화 형성에 기독교가 이룬 역할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한 것에 이번 국회의원 인식조사의 의미가 있다고 본다”며 “정치권에서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원들의 이러한 의견과 인식조사 결과를 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해 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지저스타임즈 www.JTNTV.kr 기독교인터넷방송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다-07837(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대표고문: 피종진목사 이사장: 장기환목사 사장: 소조우목사 발행인: 장기남목사

전국 21개 지사 / 해외 25개국 지사
▶주소 :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574-10 대운빌라 1층 제2호
▶E-mail : jtpress@hanmail.net
▶전화 : 032) 672-3031(팩스겸용) ▶직통 : 070) 8230-0034
▶H.P : 010) 5468-6574
▶정성을 다한 후원금은 도시 농어촌 미자립교회와 해외지사에 신문을 보내는 선교사가 됩니다. 문서선교에 후원이사가 되어 주십시오.
▶1구좌 후원금 10,000원부터~
▶1년 구독료 : 40,000원
▶후원계좌(예금주 : 정기님)
하나은행 670-110405-00108 / 농협 455030-56-005509

소진우 목사 2011년-2012년 성회일정

늘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교회와 동역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담임목사 소진우 목사
PASTOR SO JIN WOO
H·P : 010-5267-1434
교회 : 02)3391-9676(대)

- 라이즈월드미션 총재
- 극동방송칼럼리스트
- 백성TV칼럼리스트
- 지저스타임즈 사장
- CTS 칼럼리스트
- 예복교회 담임

2011년 1월
1/1 갈멜산기도원(임예제 원장)
3-5 동탄사랑교회(이주홍 목사)
7 한일산기도원(이영준 원장)
9-15 신년특별총회(예복교회)
13 갈리고단 제직세미나
16-19 성마음교회(전동희 목사)
24 천보산기도원(유택진 원장)
24-7 갈멜산기도원(이옥관 원장)

2011년 2월
31-4 캄보디아 선교대성회
6 효창중앙교회(최복대 목사)
7-9 숭실산기도원(김형진 목사)
13 천보산기도원(유택진 원장)
14-17 성산수양관(윤호균 원장)
20 한강중앙교회(최정규 목사)
21-23 미수교회(조영구 목사)
24 갈멜산기도원(임예제 원장)
27-3/2 원당소망교회(김영호 목사)

2011년 3월
복합축복대성회
7-10 성석교회(편재영 목사)
13-16 월계성도교회(김봉하 목사)
20 천보산기도원(유택진 목사)
28-31 은누리교회(조인환 목사)

2011년 4월
4-7 갈멜산기도원(유택진 목사)
7-9 갈멜산기도원(임예제 원장)
10-12 정교회(이광구 목사)
12-14 천보산기도원(유택진 목사)
17 관음기도원(김해배 원장)
18-20 내곡교회(함형민 목사)
25-27 신갈성도교회(이광수 목사)

2011년 5월
2-4 서울서지방어전도연합성회
9-12 갈멜산기도원(임예제 원장)
15 천보산기도원(유택진 목사)
16-18 동대천교회(홍무열 목사)
24-25 남영주기독교연합성회(회장 이정근 목사)
31-63 선교지방문(노회선교위원회)

2011년 6월
6-8 소망성교회(이종환 목사)
13-17 선교지 방문
17(금) 갈멜산기도원 (임예제 원장)
20-22 생명나우교회(성낙근 목사)
26-7.2 심야특별기도대성회

2011년 7월
4-6 새명교회(이영진 목사)
10 천보산기도원(유택진 원장)
11-15 신학성여름특별세미나
18-21 소망기도원(연인애 원장)
23 갈멜산기도원 (임예제 원장)
25-27 원주변교회(김영호 목사)

2011년 8월
1-4 금산인마누엘수양관(이수영 원장)
5 한일산기도원(이영준 원장)
7 천보산기도원(유택진 원장)
8-11 관음기도원(김해배 원장)
15-18 갈멜산기도원(이옥관 원장)
22-25 천문기도원(최정숙 원장)
23 오산리 금식기도원
29-9/1 도곡산기도원(양재자 원장)

2011년 9월
4 천보산기도원(유택진 목사)
5 은누리복음교회(이영준 목사)
5-9 은누리복음교회(이영준 목사)
12-15 동광합동교회(최정숙 목사)
18 성안교회(이영준 목사)
19-22 교단총회
24 갈멜산기도원(임예제 원장)
26-28 성은교회(지동수 목사)

2011년 10월
2 천보산기도원(유택진 목사)
3-5 양주 비전교회(김형진 목사)
10-12 진전 퇴계원기독교연합성회(박건익 원장)
13 성산수양관(윤호균 원장)
17-19 은진교회(서동욱 목사)
23-26 은진교회(서동욱 목사)
27 오산리 금식기도원
28 갈멜산기도원(유택진 원장)
30 천보산기도원(유택진 목사)
31-11/2 평동교회(김성우 목사)

2011년 11월
3 베데스다기도원 (허영혜 원장)
7-9 반석교회(이종현 목사)
14-16 주안성경교회(전영준 목사)
17 성산수양관(윤호균 원장)
21-24 주님의교회(김영준 목사)
27 천보산기도원(유택진 목사)
28-30 서광교회(김정숙 목사)

2011년 12월
5-7 성광교회(유인덕 목사)
8 성산수양관(윤호균 목사)
12-16 인도 선교 집회
19-22 소망성교회(연인애 원장)
25 천보산기도원(유택진 목사)
26-28 반석중앙교회(이영준 목사)

2012년 1월
2-4 천성교회(김영목 목사)
6 오산리금식기도원(조희연 원장)
9-11 은사리교회(최대식 목사)
13 한일산기도원(이영준 원장)
16-18 신성교회(정대호)
19 성산수양관(윤호균 원장)
22 천보산기도원(유택진 원장)
23-26 광은기도원(김해배 원장)
29 예제교회(유준모 목사)
30-1/2 환동교회(송우종 목사)

2012년 2월
6-9 갈멜산기도원(이옥관 원장)
12 예수소망교회(신동식 목사)
13-15 신갈성도교회(이광수 목사)

2012년 3월
16 성산수양관(윤호균 목사)
19-22 평강교회(박성주 목사)
27-29 증평평강교회(고영철 목사)

2012년 4월
2-4 하예성교회(강대총 목사)
5-6 성소기기도원(박정원 원장)
9-10 정교회
15 천보산기도원(유택진 원장)
16-18 동탄제자교회(이석원 목사)
23-25 주사리교회(김주환 목사)
27 갈멜산기도원(임예제 원장)

2012년 5월
31-3 천보산기도원(유택진 원장)
7-9 우리교회(홍은교회)(이영진 목사)
13-16 성신교회(송영도 목사)
21-24 평동교회(김동식 목사)

2012년 6월
3-6 주한양교회(윤경구 목사)
7 갈멜산기도원(임예제 원장)
10 천보산기도원(유택진 목사)
12-14 베데스다교회(허영혜 목사)
17-30 2주년축성대성회(예복교회)

2012년 7월
2-5 사명자성교회(송요섭 원장)
8 천보산기도원(유택진 원장)

2012년 8월
5 천보산기도원(유택진 원장)
8-10 한일산기도원(이영준 원장)
11-16 광은기도원(김해배 원장)
20-23 갈멜산기도원(이옥관 원장)
27-30 성산수양관(윤호균 원장)

2012년 9월
2 천보산기도원(유택진 원장)
3-6 은누리연합성회(이영준 목사)
10-12 새안교회(김영준 목사)
17-20 교단총회
24-26 성종교회(이옥석 목사)
30 천보산기도원(유택진 원장)

2012년 10월
7-9 퇴계원기독교연합성회(김동진 목사)
15-16 정교회
22-25 진전교회(송대규 목사)
28 천보산기도원(유택진 목사)
29-31 전라북도기독교연합성회(회장 한신현 목사)

2012년 11월
5-9 선교지방문
11-14 동서교회(박재동 목사)
19-21 성안교회(이영준 목사)
25 천보산기도원(유택진 원장)
26-28 예수비전교회(이승업 목사)

2012년 12월
2-7 부흥성회(예복교회)
3-5 임마누엘교회(정대원 목사)
10-12 예원교회(한규식 목사)
17-21 필리핀선교회
23 천보산기도원(유택진 원장)



대한예수교
장로회

예복교회

고려총회 WCC 개최반대 보수신학 수호를

총회장 박창환 목사, 부총회장 천 환 목사 당선, 총무 강구원 목사 연임

대한예수교장로회 고려총회가 18~20일까지 경기도 파주시 파평면 파산서원길 소재, 고려신학교 아카데미캠퍼스에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표제로 제 62회 정기총회가 개최되어, 박창환 목사가 총회장에 당선됐다. 이어 부총회장에 천 환 목사를 선출하고, 총무 강구원 목사는 연임됐다.

박 총회장은“부산에서 열릴 WCC 총회를 앞두고, 보수신학을 지키기 위해 우리 교단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라며 “이 일과 관련해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와 연계해 활발히 활동해온 강구원 총무가 재선임 받은 것을 봐도, 우리 교단적으로 힘써야 할 일들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총회장은 5가지 목표로 신학교 운동, 선교적 책임, 국내 전도와 교

회 개척, 교단 발간 공과 보급 확대, 유지재단 가입 확대 등을 제시했다. 박 총회장은 특히“신학교운동 더 전개해나가야 우리 교단이 정체성을 바로세우고 살아 남는다”며“또한 우리 교단이 발간한 공과가 매우 성경적으로, 이것을 가르쳐야 우리 교단 정체성이 정확히 드러날 것”이라고 강조하고, 2013년 WCC 총회를 앞두고 보수 교단으로서의 정체성은 분명하고 확고하다고 덧붙였다.

2012년 9월 총회에서 신임원은 총회장 박창환 목사, 부총회장 천환 목사, 총무 강구원 목사, 서기 이현상 목사, 부서기 김실구 목사, 회록서기 김원구 목사, 부회록서기 이웅백 목사, 회계 이영훈 장로, 부회계 신태석 장로가 선출되어 새롭게 출발했다.



예장백석, 총회장 정영근 목사 선출

부총회장 이종승 목사 당선, 사무총장 이경욱 목사 연임



대한예수교장로회(백석)총회 제35회 정기총회가 지난 9월 17일 ~20일까지 천안 백석대학교회에서 개최되어 정영근 목사(사진·성문교회)를 투표 없이 기립박수로 총회장으로 추대했다. 부총회장에는 이종승 목사(장원 임마누엘교회), 장로 부총회장에는 유철호 장로가 무투표로 당선됐다.

이 부총회장은 당선인사에서 “총회장

을 잘 보필하여 정책을 펴갈 것이며, 대한민국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총회로 이끌겠다”고 말하고 “약속한 정책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다짐했다.

앞서 찬조발언을 맡은 양병희 목사(증경총회장, 한장총 직전회장)는 “총회의 각 분야에서 다양한 경험이 있어 총회장역임 시 큰 자산이 될 것이라 믿는다. 또한 현재 속한 지역에서 활발한 활동으로 교단의 위상을 높이고 있듯이 이 목사를 통해 교단의 입지를 넓이게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날, 총회장 정영근 목사, 부총회장 이

종승 목사, 유철호 장로, 서기 정병훈 목사, 부서기 최도경 목사, 회록서기 김종명 목사, 부회록서기 박종호 목사, 회계 정우진 장로, 부회계 이재원 장로가 선출됐다.

3년 임기의 사무총장에는 이경욱 목사가 각각 연임됐다.

한편 경남지역은 최근 통합 지용수 목사(양곡교회), 고신 윤희구 목사(한빛교회)에 이어 또 한명의 총회장을 배출할 예정이다.

이 총회장은 2013년도 총회에서 총회장을 승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부총회장 이종승 목사는 경남성서화 운동본부 초대 대표본부장을 지냈으며, 지금은 삼일회장을 맡고 있다.

예장정통총회 48차 총회, 총회장 양정섭 목사 당선

총회장 양정섭 목사 유임, 부총회장 이규형, 김홍룡, 이영춘 목사를 선출



대한예수교장로회(정통)총회는 지난 9월 10일~11일, 서울 구로구 구로동 평안교회에서 제 48차 정기총회를 개최, 현 총회장 양정섭 목사(사진)가 만장일치 추대되어 총회장에 당선됐다. 상임총무 임정태 목사의 인도로 1부예배가 진행되어, 부총회장 이영춘 목사(감람산기도원 원장)가 기도를, 성경말씀 디모데전서 4:6-16을 임정태 목사 봉독했다.

총회장 양정섭 목사는 이날“목회자의 자격”이란 제하의 말씀을 선포했다. 양 총회장은 w.c.c 운동을 반대한다는 교단의 취지를 밝혔으며, 성경대로 살며, 자유주의에 현혹되지 말고, 정통인으로 살아가며 당부했다. 이어 1부 예배는 부총회장

김인호 목사(성민교회)축도로 마쳤다.

제2부 회무처리에 들어가 부총회장 양정식 목사가 기도를, 서기 김연숙 목사가 회원점명으로 210명중 121명이 참석했다는 보고에 의해 의장 양정섭 목사가 회회를 선포했다.

이어 회순채택과 회의록 낭독, 사업보고, 신학원보고, 재정보고 등이 있는 후 임원선출에서 양정섭 목사가 재48대 총회장으로 만장일치 위임되고, 부총회장 이규형 목사, 김홍룡 목사, 이영춘 목사를 선출했다.

이어서 상임총무 임정태 목사, 총무 이대용 목사, 국내총무 이광복 목사, 해외총무 황종만 목사, 협동총무 박종오 목사, 서기 김연숙 목사, 회계 김영의 목사, 부회계 임병선 목사, 회의록서기 이기영 목사, 부회록서기 양성은 목사, 감사 서수복 목사, 조익수 목사 등을 선출했다.

예장 합동진리, 총회장에 박중선 목사를 선출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진리)는 제97회 정기총회를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송내대로 42번길 소재 한마음교회(박중선 목사·사진)에서 개최했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총회(눅 22:42)라는 주제로 총무 홍기남 목사의 사회로 계획예배가 진행되어 부총회장 유근호 목사가 기도를, 경기남노회 임동의 찬양이 있는 후, 총회장 정종진 목사는 창 50:15~21절을 인용“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라는 제하의 말씀을 선포했다. 이어

회의록서기 최경환 목사가 봉헌기도를 하고, 증경총회장 한기창 목사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이어 사무처리에 들어가 임원선거에서 제97회기 신임원은 다음과 같다.

총회장 박중선 목사, 부총회장 조병록, 박수안, 유근호, 강순복, 박대순 목사, 서기 최경환 목사, 부서기 배승모 목사, 회의록서기 최정영 목사, 부회의록서기 전기호 목사, 회계 김정숙 목사, 부회계 김정화 목사, 총무 홍기남 목사, 부총무 한정숙, 박영남, 성경용, 박영덕 목사, 감사 최명규, 이병갑, 김원철, 이영희, 조은혜 목사 등이다.

예장합동 제97회 총회폐막, “시작부터 날선공방”

1면에 이어서

총회 이슈였던 선거법(제비뽑기)개정과 GMS 사태 등 각종 현안안을 다루었다. 먼저 눈길을 끄는 것은 지난 2010년 제95회 총회 때부터 논란이 되어 온 ‘선거법’ 관련 현안이다. 합동 내에서는 현행 ‘제비뽑기’대신 직접 선거로 부총회장 등 임원들을 선출하자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총회장과 목사부총회장이 될 수 있는 자격 중 ‘목사 장립 후 만 20년 이상 된 자’(총회선거규정 제3장 제11조 1-①)가 ‘만 60세 이상 된 자’로 변경 원상복구 ‘세례교인 500명 이상’ 조항도 삽입됐다.

나머지 임원들의 입후보 자격에도 ‘세례교인 300명 이상 교회 사무자’ 조항이 추가됐다. “교회가 작으면 능력이 있어도 임원이 될 수 없느냐”는 반발이 있었지만 다수 총대들이 개정안에 찬성해 그대로 통과됐다.

GMS는 전, 현직 관계자들은 감사부 보고

내용만으로는 오해의 소지가 있으며 무엇보다 최근 GMS가 새 임원진을 선출하고 갈등을 봉합해 가는 과정에 있기에 GMS를 살리는 차원에서 보다 보완된 소명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다.

이후 GMS 감사보고에 대한 사후처리를 놓고 격론이 벌어진 끝에 총대들은 GMS 새 임원진이 이번 감사보고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차후 개선방향을 마련, 이를 정준모 총회장에게 보고토록 결의했다. 정 총회장은 만약 GMS 새 임원진의 보고가 미흡할 경우 자신이 책임지고 강력 대응하겠다고 마무리했다. 또한 긴급동의안으로 ‘종자언 결의문’ 만장일치 채택하고, “기독교 공적 선봉에 선 종자언, 교단 차원에서 대응”하도록 결의했다.

찬송가 법인화에 관하여 ‘한국찬송가공회’(이하 공회)는 법인화 되어선 안 된다며, 파송한 이사는 소환하되 이사들이 이에 응하지 않을시 신분상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5인의 특별조사처리위원회가 구성하고 이들로 하여금 이사들을 소환하고 이에 불응시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기로 결의했다.

총신대의 탐라대 인수안전에 대해 찬반 토론이 끝난 후 총회장 정준모 목사는 거수로 총대들의 의견을 물었고, 대부분 총대들이 인수 반대에 손을 들어 총신대가 야심차게 준비하던 탐라대 인수는 성립되지 못했다.

제97회 정기총회마지막 날인 21일 오전 12시경 잔여 안건들을 임원회에 위임하고 폐회했으나, 총회장 정준모 목사의 폐회 선언이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자리에 남은 이들이 ‘총회 정당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서창수 목사, 이하 비대위)를 구성, 비대위에 향후 대책 등 전권을 위임했다.

남은 이들은 오정호 목사대전 새로남교회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남아서

모여 있는 이들 중에는 총대가 아닌 이들도 있으며, 현직 임원들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들을 오랜 시간 고민하다 비대위 구성으로 가닥을 잡고, 각 노회장들이 모여 논의한 끝에 15인 비대위를 조직했다. 비대위는 앞으로 임원들을 대상으로 한 ‘직무집행정지처분’ 등 법적 조치에 나선다.

그러나 이미 한기총 사태의 판례, 개혁총회에서의 판례 등 이들이 속회를 선언하더라도 법적 정당성을 인정받진 못할 것으로 보인다. 또 총회를 사회법에 고소해 패소한 총대는 향후 5년간 총대권을 박탈하기로 결의한 상태다.

하지만 총회장 취임식에도 불참을 선언하고, 같은 시간 총회회관 여전도회관에서 총회정당화를위한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서창수 위원장)는 전국 71명의 노회장들과, 842 명의 총대가 소집되어 있는 이때, 또 다시 용역 동원을 비롯한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지 않겠느냐는 전망에 많은 목회자들은 우려스러운 모습이다.

알기 쉬운 52주 헬라이어 문법



저자 전준덕(田埈德) (1934년 8월 30일 생)

출생지 전남 담양군 담양읍 객사리

현주소 광주광역시 동구 동계천로

경력 교단산하 수십 신학교에서 오랫동안 님마출강하다.

현재 인천에어드신학교, 총회신학교, 동서신학교, 일심회관(특강)등에서 강의 중

저서 헬라이어 낱말분해사전(2010년)
알기쉬운 52주 헬라이어 문법(2011년)
(발행처 : 월간사보)

추천서 최진근 박사(전 한양대학교 이사장)
고민영 목사(한국기독교장로회 원로 목사)
한국 기독교장로회 총회 전 선교사업국장
광주 무돌교회 전 담임목사
2011년 10월 30일 초판 발행

연락처 02-822-1971 070-8230-0034
010-5468-6574

신간 안내



KGE바이블(KGE BIBLE)
마태복음 Matthew



KGE바이블(KGE BIBLE)
마가복음 Mark



KGE바이블(KGE BIBLE)
누가복음 Luke



KGE바이블(KGE BIBLE)
요한복음 John

▶ **KGE BIBLE의 특징(고급 강해설교 자료)**

- 3개국 언어 축자 대역
- KJV역 검증
- 개역신약전서 검증
- 대표적 12개 영어 성경 번역비교
- 페쉬타 아람어 비교
- 사본상 차이점 제시
- 모든 내용 영문 대역
- 다른 번역문 제시

▶ **편저자 송중섭(Jong sub, SONG)**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졸업
미국, Maine, 뱅골신학교 수학
미국, S.C, Erskine(연합장로교회 교단) 신학교 졸업
(M. Div. D.Min)

한민대학교 신학부 교수 역임
대한 예수교 장로회 광명교회 역임
신학원어연구소 회장
동서신학원 원장

▶ **학위논문**
“Strategies and Methods for Evangelism.”

▶ **저서 및 역서**
저서 『스미스 리 강해설교』(전 16권) 등 다수
역서 『폼뎅 주석 창세기』, 『카일멜레워 주석』, 『알포드 원론 주석』(전9권), 『벌커트 성경해석학』 등 다수
편저 헬라이어 소사전, 『성경분해사전』, 『헬한대조 신약성경』, 『신약분석성경』, 『뉴바이블』 등 다수

주문처 02-903-8360 / 070-8230-0034 / 010-5468-6574

불교의 기독교의 구원관 비교 (4)

신용주 목사(한밀교회 담임)



불교의 근본적 세계관은 물질적 정신적 요소의 모든 것을 고(苦)라고 본다. 기독교에서 인간은 모든 문제를 죄(罪)로 보듯이, 불교에서의 최고의 문제는 고(苦)다. 살아서 존재하는 모든 것은 고통이라고 생각해서 나온 교리가 일체개고(一切皆苦) : 모든 것이 전부 고통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불교의 궁극적 이상은 나라고 하는 존재가 완전히 없어져서 절대 무(無)로 돌아가는 것이며, 이것을 불교에서는 해탈(解脫)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무엇으로부터 해탈인가? 나의 업보에 따라 끝없이 6도(천상 인간 수라 아귀 지옥 축생)의 세계를 윤회하는 생사윤회의 세계로부터 해탈이다.

즉 더 이상 태어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상태, 기쁨도 슬픔도 즐거움도 고통도 번뇌도 아무 느낌도 없는 그래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완전히 사라지는 경지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궁극적 이상이며 이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구원이다. 이 해탈을 다른 말로 열반(涅槃)이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인도 고어 산스크리트어로 니르바나(불이 꺼져버린 상태)에서 왔다.

사성제 / 이렇게 생사윤회로부터 해탈하는 것을 궁극적 이상으로 삼고 있는 불교의 교리중에 꼭 알아야할 것이 사성제(四聖諦:4가지 거룩한 깨달음)이다 사성제는 불교교리의 정수라고 할수 있는 아주 중요한 교리다.

1) 고성제(苦聖諦)

사성제중의 고성제(苦聖諦)는 인생의 삶에는 필연적으로 고통을 수반한다는 것이다. 고통에는 사고(死苦)와 팔고(八苦)가 있다. 사고는 생노병사의 4가지 고통 -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것 자체가 고통이라는 것이다. 팔고는 사고에다가 애별이고(愛別離苦: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는 것), 원증회고(怨憎會苦:미워하는 사람과 만나야하는 고통), 구부득고(求不得苦:소유하고 싶어도 소유하지 못하는 고통), 오음성고(五陰盛苦:인간을 구성하고 있는 5가지 요소의 복합체 자체가 고통)를 더한 것이다. 불교에서는 이처럼 인간 존재자체가 고통인 것을 인식하고 깨달을 때 해탈의 길을 갈수 있다고 믿는 것이다

2) 집성제(集聖諦)

집성제는 고통이 발생하는 원인을 밝히

는 것을 말한다. 왜 인생이 이렇게 괴로운가? 인생의 모든 비극은 집착에서 온다는 것이다. 인간이 끊임없이 무언가를 욕구하는 욕망 때문에 고통이 온 것이고, 이 욕망이 계속되는 한 사후에 또 다른 고통의 존재로 태어나서 생사윤회의 과정을 반복한다는 것이다.

3)멸성제(滅聖諦)

멸성제는 인생의 고통을 고치는 방법에 관한 것인데, 고통을 없애기 위해서는 인간의 욕망을 멸해야하며, 이렇게 고통이 완전히 멸한 상태가 불교의 이상세계인 열반이라고 부른다.

4)도성제(道聖諦)

도성제란 고통을 없애는 열반의 세계에 어떻게 갈수 있는가? 그 열반으로 가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한 것으로 도성제의 내용이 바로 불교의 팔정도(八正道)다.

팔정도는 정견(正見),정사(正思), 정어(正語), 정업(正業),정명(正命),정정진(正精進), 정념(正念), 정정(正定)이다. 이 팔정도를 통하여 생사윤회를 끊고 열반의 세계 즉 완전히 무의 세계로 들어간다는 것이다.

“활활 불타는 아비지옥으로 떨어지니 한이 만갈래”

이상에서 보듯이 불교에서 추구하는 구원과 기독교에서 추구하는 구원의 개념이 완전히 다르다. 기독교에서는 인간 세상에 고통과 저주가 온 것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 함으로서,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버렸기 때문인 것으로 본다.

에베소서 2장 말씀대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에서 마귀의 종이 되어 온갖 죄를 지으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저주와 슬픔 가운데 살다가 죽고 난 뒤에는 심판받아 지옥으로 가야하는 존재가 된 것이다.

이처럼 인간은 영적으로 죽어버렸기 때문에 불교의 팔정도의 가르침대로 아무리 불도를 닦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마치 죽은 시체에 연지 찍고 분바르는 격이다. 그런데 불교에서는 팔정도를 통하여 부처가 되기 위하여 평생을 노력하고 애를 쓰고 있는 것이다. 인간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죄로 물든 죄의 장아찌인데, 어떻게 팔정도의 가르침대로 바로 볼 수 있으며(정견), 바로 생각할 수 있으며(정사), 바로 말할수 있는가(정어)? 팔정도를 평생에 걸쳐 닦아도 인간은 구원받을 수 없다

불교계에서 가장 존경받던 성철스님은 불도를 닦아 부처가 되기 위하여 팔년 동안 장좌 불와 했던 분이다. 그러나 그가 죽기 전에 했던 열반 송은 가히 충격적이다

生平欺狂 男女群(생평기광 남녀군) 한 평생 남녀 무리를 속여 미치게 했으니,彌天罪業 過修彌(미천죄업 과수미) 그 죄업

이 하늘에 미치고 수미산을 지난다. 活焰阿鼻 恨萬端(활염아비 한만단) 활활 불타는 아비지옥으로 떨어지니 한이 만 갈래다. 輪吐紅 掛碧山(일륜토홍 괘벽산) 한덩이 붉은 해가 서산에 걸렸구나' 부처가 되기 위하여 한평생 옹매정진 했던 그가 죽기직전에 영의 눈이 열려서 보니까 자기가 평생 수많은 사람들을 거짓진리로 속인 죄가 얼마나 큰지 수미산(불교의 세계관에서 가장 크다고 생각하는 상상의 산)만큼이나 크다. 그래서 나는 지옥중에 제일 무서운 아비지옥에 떨어지니 이제 후회하고 탄식해도 해가 서산에 떨어지는 것처럼 더 이상 손쓸 방법이 없다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구원의 마지막 종착지다.

불교에는 결론적으로 구원이 없는 종교이다. 영적으로 죽어버린 인간이 자기 힘과 노력으로 아무리 철야정진하며 불도를 닦더라도 마지막종착역은 지옥이라는 것을 성철스님이 죽기 전에 고백한 것이다. 설사 불교교리 말대로 도를 닦아 부처가 된다고 한들, 나라고 하는 존재가 완전히 무로 돌아가는 것이니 얼마나 허무하기 짝이 없는 구원인가?

그러나 기독교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이다

우리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

하여 내 힘으로는 나를 죄와 저주와 슬픔과 고통과 죽음가운데서 건질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흘려 죽으신 것이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피로 회개하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생명의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면 모든 죄가 용서함 받고, 더 놀라운 것은 믿는 자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죽었던 영을 살리신다. 그래서 다시 살아난 나의 영과 성령님의 사랑의 교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죄를 이길 수 있는 권능을 주시고 세상과 구별되어 거룩하게 살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이다.

이제 믿는 자는 로마서 14:17말씀대로 성령님이 주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통하여 이 땅에서도 천국의 축복을 누리며 살다가, 죽은 후에는 불교에서처럼 완전히 무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로 다할 수 없는 기쁨과 사랑과 평강과 행복으로 충만한 천국에서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다.

불교에서 말하는 구원과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의 개념자체가 하늘과 땅처럼 다른데도, 종교다원주의자들은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불교를 제대로 연구해보면 그런 잠꼬대 같은 소리를 할 수가 없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 이 놀라운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린다.

안티기독교에 한국교회의 대응전략은

45차 정기조찬모임 열고 안티기독교대처와 저작권문제 공동대처하기로



미래목회포럼(대표 정성진 목사)은 45차 정기조찬 모임을 엠버서더에서 '안티기독교와 한국교회의 미래'를 주제로 가졌다.

이날 1부에는 부대표 오정호목사(대전 새로남교회)의 사회로, 한국교회 연합과 일치, 미래를 위하여 부이사장 김승연 목사(전주 서문교회)가 기도한 후 이사장 최이우 목사(종교교회)가 환영사를 하고 '안티기독교에 대한 한국교회 대응전략'에 대하여 김승규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가 특강을 하였다.

특강에서 김승규 변호사는 "3만여 명의 안티기독교 세력의 다양하고 집요한 공격앞에서 한국교회가 너무 무방비하고 무관심하다"고 지적하였고 "한국교회가 진정으로 미래를 위한다면 교권싸움에 몰두하기 보다는 하나되어서 안티기독교의 공격을 예방하였다"라고 밝혔다. 더 나아가 "몇몇 인사들의 문제가 한국교회 이미지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스스로 자정하는 품격과 함께 한국교회가 공동대처 하기 위해 인터넷 대처팀을 만드는 일과 와 법률적인 대응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문하였다.

특강 후 포럼 대표 정성진 목사(거룩한 빛 광성교회)의 사회로 진행된 종합토론에서는 종교편향 기독교대책위 박종언 총괄간사는 국가인권위와 종자연의 행태에 대한 보고와 더불어 종합학교의 교권을 침해하는 사태에 대하여 "종립학교 이사장과 교장을 초청하여 8월 30일 간담회를 가지고 서명에 돌입하게 된다"는 내용을 보고받았다.

이어 포럼 사무총장 이효상 목사의 보고로 '목회자 소독제에 대한 세금문제와 강남지역을 325개중 11개기관을 표적으로 한 교회 세금폭탄 돌리기'에 대하여 심도 있는 토의가 이어졌고, 이에 김호권 목사(동부광성교회)가 '교회 가 그동안 진행해 왔던 교회 내 문화강

좌, 교육을 학원 법에 의하여 전면금지 당한 조치에 대하여 국회 공청회를 가졌고 입법청원을 통하여 평생교육법이 재개정 되도록 할 것'과 '교회내 교육이 법원에서 1심 무죄판결된 것'을 공개하여 주목을 받았다.

이날 종합 토의에서 집중논의 된 것은 집행위원장 장학일 목사(예수마을교회)의 '교회내 사용하는 음악에 대한 저작권 문제가 심각하므로 개교회가 수천만 원의 추정금을 맞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한국교회가 집단 소송에 휩싸일 우려가 있으므로 공동대처가 필요하다'는 제안을 하였고, 김승연 목사의 '전주서문교회는 지난해 트럭 차량 한 대분의 약보를 소각시킨 사례를 발표'하였고, 고명진 목사의 '수원중앙교회는 예배시 사용하는 프로젝트와 홈페이지의 글자체까지 바꾸는 사례'를 발표하였다.

이에 포럼에서는 한국교회의 공동대처기구를 구성하기로 하고, 저작권자와 업무협약(MOU)를 맺어 악보 및 동영상 등 전반에 걸친 한국교회의 피해를 최소화하기로 하였다. 대책위원으로 양인평 변호사, 고명진 목사, 장학일 목사, 안종배 교수(한세대), 이효상목사, 이성철 원장(방성문화원) 등 주요 인사들과 교계 관계자들을 추가하여 대처방안을 모색하기로 하였다.

포럼은 10월 5일 종교개혁 495주년 기념으로 김동호 목사(높은 뜻 연합성교회)를 초청하여 '복음을 원한다면 지갑을 찢어라'라는 주제로 종교개혁정신과 재정의 투명성에 대한 46차 정기조찬모임으로 가지게 된다. 10월 15일에는 포럼이 전국의 목회자들을 초청하여 매년 가지는 기획목회사역설명회, 제7차 세미나를 서울 종로구 연지동 기독교연합회관에서 '건강한 목회를 위한 로드맵'이라는 주제로 2013년 새해목회를 준비하게 할 예정이다.

또한 미래목회포럼은 교회의 양질의 영상미디어를 제공하는 일에 한국기독교방송문화원과 협력하며, 기독교영상대전을 함께 올 연말에 개최하기로 하였다.

그리스도인으로 진정 '잘' 사는 법

〈불편한 말씀의 능력〉 빅터 콜리진 著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요!"라고 습관적으로 기도한다. 그런데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 중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뜻을 이해하고 있을까? 예수님처럼 산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이 세상에서 부유하고 편안하게 살고 싶다면, 모든 사람의 사랑을 받으며 살고 싶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는 말을 쉽게 해서는 안 된다. 어떤 고난이 찾아와도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해내겠다는 각오가 되어 있을 때, 세상의 질타를 받으면서도 진리의 말씀을 따를 각오가 되어 있을 때, 비로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넥서스 CROSS에서 출간한 <불편한 말씀의 능력>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지키고 따라야 할 것들은 외면한 채 세상적인 부와 성공만 관심을 두는 이 세대를 비판하며 예수님의 진정한 가르침을 보여 주고 있다.

(넥서스CROSS/360p/13,000원)

대한예수교장로회 공덕교회

2012년 표어 :

성령의 은혜와 말씀이 왕성한 교회(행 6:7절)



담임 서명복 목사

담 임 : 서명복 목사(본지 운영이사)

시무장로 : 송두현 조길수 박성현

교육전도사 : 김민호

<예배안내>

주일예배 오전11시 오후2시

삼일방 오후8시 금요기도회 저녁9시

주소 : 충남 공주시 봉황동 295번지
전화 : 0411853-9966 855-0691
홈페이지 http://lov153.cafe24.com

대한예수교장로회 목포주안교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이 설립하여 주신 주님의 교회임을 선언하며 다음과 같은 사명을 감당할 것입니다.



담임 모상련 목사

주일예배 시간 장소

요 일	예 배	시 간	장 소
주 일	보통예	1회 오전 7시 30분	3,4층 대 예배실
		2회 오전 11시 30분	3,4층 대 예배실
주 일	저녁예배	오후 7시	3,4층 대 예배실
		오후 7시 30분	3,4층 대 예배실
주 일	수요예배	오전 7시 30분	3,4층 대 예배실
		저녁 9시 30분	3,4층 대 예배실
주 일	금요예배	오전 5시	3,4층 대 예배실
		오전 5시	5층 영산강홀
주 일	장년부예배	오전 5시	5층 영산강홀
		오후 5시	5층 두란노홀
주 일	유치부	1회 오전 9시 30분	2층 새롬실
		2회 오전 11시 30분	2층 새롬실
주 일	유초등부	1회 오전 8시 30분	3,4층 대 예배실
		2회 오전 11시 30분	3층 아동연터
주 일	중등부	오전 9시	2층 영산강홀
		오전 11시	2층 영산강홀
주 일	고등부	오전 11시	2층 영산강홀
		오후 1시 30분	5층 두란노홀

전남 목포시 북항동 1671-15 (북항주책단지)

대표전화 : 0611272-4908, 0611278-0692 팩스번호 : 0611278-0693

기독교대한성결교회 두란노교회



담임 콧완근 목사 (신문방송 운영이사)

< 예 배 안 내 >

주일오전 : 오전 11:00

주일오후 : 오후 2:00

수요일 : 오후 7:30

새벽기도 : 오전 6:00

기독교대한성결교회 두란노교회

충남 공주시 봉황동 96번지

전화 : 041-854-3676 H.P 018-320-1507

대한예수교 평안교회 장로회



담임 장승현 목사 (본지 논설위원)

“가족같이 가정같이 평안하고 행복한 교회로.....”

충남 당진군 송악면 봉곡리 55-6
전화 041)356-0644, 팩스 041)356-0646
E-mail : sunghyun732@hanmail.net
H.P 011)9027-9712

합동중앙총회 16대 총회장 조갑문 목사 연임

교단 부흥 주력과 민족복음화 · 타문화권 선교 한층 강화약속



합동중앙총회 총회장 조갑문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중앙)총회의 제 46회 정기총회가 지난 11일(화) 오전10시 30분 경기도 고양시 주교동 소재, 총회본부에서 개최되어 조갑문 목사가 총회장

에 당선됐다. 서기 권오장 목사 인도로 개회예배를 시작, 부총회장 손문석 목사의 기도, 총회장 조갑문 목사는 마17:1~8절을 인용 '반석위에 세우는 총회'라는 주제로 말씀을 선포했다.

이날 총회장 조갑문 목사는 취임사에서 합동중앙총회가 민족복음화와 타문화권



예배드리는 총대들

선교 기류를 한층 강화해 나아갈 것을 밝혔다. "총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총회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면서 "이를 통해 총회 산하 노회와 지 교회 전체가 지지하고 공감하는 총회가 되도록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총회원들

의 순발 역할을 감당하며 겸손하게 섬기겠다"면서 "총회원들의 고견을 언제나 청취해 열린 마음으로 총회를 이끌어 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 총회장은 "이번 취임식을 계기로 국내외 선교를 한층 강화해 나아갈 생각"이라면서 "100년

을 준비하는 총회로 도약할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홍재철 목사는 합동중앙총회 성총회를 격려사와 함께 축하의 말씀을 전했다. 이날 총무 최명우 목사, 사무총장 배인관 장로 등이 자리 같이했다.

이어진 총회장 취임식에서는 권오장 목사(서기)의 사회로 조육련 목사(증경총회장)의 기도, 조장훈, 정진경(서울영광교회) 청년의 특송과 한기총 직전대표회장인 이광선목사(신일교회)가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란 주제로 말씀을 선포했다.

이어 월드미션위임선교단의 축하, 강준오 목사(교회연합신문 발행인), 조호태 목사(광안은혜교회)의 축사를, 직전총회장 서육임 목사, 증경 총회장 김효운 목사가 격려사를 끝으로 증경총회장 강용식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한편 총회와 노회에서 총회장 취임 축하패를 전달하는 등 화기애애한 성총회로 새롭게 출발했다.

한국교회 언론회 논평



한국교회언론회대표
김승동 목사

"국가인권위 '종교편향' 부추기지 말고, 종교교육의 가치를 바르게 살피는 역할이 필요하다".

지난 5월 17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와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하 종자연)이 '종교에 의한 차별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대하여 한국교회언론회를 비롯한 기독교계에서는 국가 기관이 불교 단체와 용

구이지만, 문광부 입장에서 볼 때, '종교편향'의 소지가 있다고 본 것이다. 회신한 공문의 내용을 보면, "다만, 국가인권위원회에 연구용역 수행과정이나 연구결과에 종교차별 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 달라"는 의견을 인권위에 제시할 것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 인권위는 종자연이 주장하는 대로, 종자연을 불교 단체로 보지 않기에, 이번 용역이 '종교편향' 문제가 될 수 없음을 출금 주장해 왔다. 그러나 같은 국가 기관인 문광부와 민간인으로 구성된 문광부의 공직자중

국가인권위, 종교편향 부추기지 말라

역 계약을 통해 기독교교회를 사찰하고, '종교편향'을 조장하는 것에 대하여 항의하였다.

그러나 인권위는 종자연이 불교 단체가 아니며, 그 용역은 정당하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이에 대하여 한국교회언론회는 지난 6월 13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광부)에 공문을 보내, 불교 단체인 종자연과 국가 기관이 기독교교회를 대상으로 하여 조사활동을 벌이는 것이 '종교차별에 해당하지'에 대한 판단을 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문광부는 8월 30일 "공직자종교차별 자문회의"를 거쳐, 9월 10일 회신을 보내 왔다. 이 회신에 의하면, "인권위의 독립성과 종교차별 실태조사가 인권위의 고유 업무인 점 등을 감안할 때, 본 자문위원회의 자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하면서도, 이것이 "종교차별 논란이 됨"을 인정하고 있다.

즉 인권위가 인권에 관한 독립된 기

교차별자문회의 전문위원들은 국가기관인 인권위와 종자연의 용역행위가 '종교차별'이 됨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라도 인권위는 불교 단체인 종자연과의 용역계약에 대한 취소와 함께, 이 계약으로 인한 어떤 조사행위도 '월천무효'라는 것을 스스로 밝혀야 한다. 진정으로 국가인권위원회가 학교에서 일어나는 '종교편향' 논란에 대하여 근본적인 것을 파악하고, 제대로 일하려고 한다면, 정부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이루어진 '학교 평준화'가 교육의 가치와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해치는 것이 아닌가를 파악하는 것이 먼저 할 일이다.

따라서 인권위는 '종교편향'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종교간 갈등을 조장하는 어떤 행위에도 앞장서지 않기를 바란다.

문광부의 의견은 9월 4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전달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WCC 반대 공식입장 표명,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구성

손선영 감독 "다시 주어진 임기동안 교단 위상 높이는데 힘쓸터"



예감 손선영 감독 연임

예수교대한감리회(이하 예감)총회는 지난 17일 오산 세교동 새에덴교회에서 '새시대, 새 사람, 새역사'(겔36:26)란 주제로 제22차 총회를 개최하고 손선영 목사가 감독에 당선되어 2년간 연임하게 되었다.

손 감독은 이날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올려드리고 지지해 주신 분들께 감사하다"면서 "반대표를 주신 분들께도 교만하지 않게 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또한 맡겨진 임기동안 교단의 위상을 높이는데 힘을 쏟을 것을 다짐하고, 2년 동안 종으로서 일꾼의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기도

와 협조를 부탁했다.

이날 예감총회는 임원 및 감사를 선정한 후 신학교 재단이사장에 김창기 목사

를 선출하고, 신학교 학장에 이명구 감독, 대학원장에 신신목 감독을 선임했다. 또한 예감은 WCC 반대를 결의한다

는 공식입장을 표명하고, 이단 척결을 위해 교단내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날 예감총회는 총회감독에 손선영 목사, 이사장 김창기 목사, 감리회신학교 학장 이명구 목사, 감리회신학대학원장 신신목 목사, 총무 조정경 목사, 서기 조한경 목사, 회계 최영철 목사를 선출하고, 각 국장은 재임명됐다.

광은교회 일산성전 입당예배 드려

대한예수교장로회 광은교회(김한배 목사)가 경기도 고양시 일산에 연건평 5,100㎡(약1,600평) 지하2층 지상6층 규모의 새 성전을 완공하고 9월 9일 주일오후 3시 입당감사예배를 드렸다.

당회장 김한배 목사의 진행으로 입당예배가 시작되어 황수석 목사(평북노회 증경노회장)가 기도를, 윤석철 목사(부노회장)는 성경 열왕기상 8:1~11절을 봉독하고 일산성전 할렐루야 성가대의 찬양과 광은교회당 회원일동, 광은교회일산성전 제직회 임원일동 등이 각각 특송을 불렀다.

노회장 윤한석 목사(노회장)는 "성전 입당과 축복"이란 주제로 말씀을 선포했다. 이어 일산성전 헤세드 찬양단의 헌금송을, 이선주 집사가 축가를 하고,

한성종 장로의 건축경과보고가 있었으며, 당회장 김한배 목사는 성전건축에 힘써준 공로자들을 소개하고 각각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어서 1) 이효은 목사(다호영제회, 화정총회교회), 2) 안준배 목사(갈릴리회, 대학로 순복음교회)가 축사를, 김한배 목사는 인사 및 광고를 전하고 문영철 목사(증경노회장)의 축도로 마쳤다.

한편 당회장 김한배 목사는 광명시 광병5동 소재 광은교회, 광명시 하안4동에 하안성전, 시흥시 정왕동에 시화성전, 평택 진위면 동천리에 세계성막복음센터 및 광은기도원, 9월 9일 입당한 일산광은교회 등으로 일산지역복음화를 위한 일산시대 열려졌다.



말씀으로 양육되고 성장하는 대광교회로 오십시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이다.(시96:6-9)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다. 만국의 족속들이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이다. 여호와께 돌릴지이다. 여호와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이다. 예를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다."

예배안내

예배	시간	장소	비고
새벽기도	매일 새벽 5:30	본당	성경강해
주일 1부 예배	주일 오전 7:30	본당	
주일 2부 예배	주일 오전 10:00	본당	열린예배
주일 3부 예배	주일 오전 11:30	본당	
주일 4부 예배	주일 오후 2:00	본당	특별예배 53월 2일
수요 기도예배	수요일 오후 8:00	본당	수요철야기도회
각 구역별 예배	각 구역별 지정시간	각 구역별 교우 가정	매월 마지막 주 연합예배

교회학교 예배안내

부서	시간	장소	대상
유치부	주일 오전 11:30	본당 지하 1교목관	취학 전 아동
유년부	주일 오전 9:00	본당 지하 1교목관	초등학교 1-3학년
소년부	주일 오전 9:00	별관 교목관	초등학교 4-6학년
중등부	주일 오전 11:30	별관 교목관	중학생 및 동급생
고등부	주일 오후 9:30	별관 교목관	고교생 및 동급생
청년 2부	주일 오후 4:00	본당	19-25세 미혼
청년 1부	주일 오후 4:00	본당	26세 이상 미혼



당회장 엄영수 목사
(대기협 회장)

대한예수교장로회 주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왕1동 1410-9
대광교회 대표전화 : 031)384-7408 부목사실 : 384-9744, 385-8933

대한예수교장로회 향기로운교회 HGIROUN CHURCH a

표어 :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요16:16)



담임 정일랑 목사

담임목사 정일랑
유성은

예/배/시/간/안/내

주일오전예배	오전 09:30 11:00	수요기도예배	오후 8:00
영락원예배	오후 3:00	영락원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	목요저녁예배	오후 8:00
청소년부예배	오전 9:00	새벽기도회	오전 5:00
주일학교예배	오전 11:00	중보기도모임	월 오후 10:00

대한예수교장로회 향기로운교회

☎032-814-7720 / 팩스 032-714-3131 010-9450-7591
주소:인천광역시 연수구 청학동 502-1(향기로운빌딩 9층 홈페이지 http://hgioun.onmam.com

대한예수교장로회(웨신)총회 목포만나교회 웨스트민스터 목포신학교

2012학년도 2학기 신입입생 모집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당신만이 꼭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몸집이 아니면 당신이 만나지 않으면 계속 어둠 속에서 헤메는 양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당신을 기다리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모상련 박사
연구원장



조광표 박사
목포신학교 학장

1. 모집과정

과정	구분	수업연한	전향지역	비고
연구원	목포신학사(MDM)	3년	4년에 대학과 신학교 졸업생 및 동등자격 인정자 또 신학석사(신학)에 준하는 학위	주간·계절학기(가·하) 2학기 이전·월·화·목·금
	목포신학사(MMA)	2년	4년에 신학교 졸업생 및 동등자격 인정자	
신학원	신학사(MTh)	4년	신학교 졸업생 및 동등자격 인정자	
	신학사(MD)	3년	신학교 졸업생 및 동등자격 인정자	
신학원	목포신학교	2년	신학교 졸업생 및 동등자격 인정자	목포신학교
	목포신학교	2년	신학교 졸업생 및 동등자격 인정자	

2. 전형일정

원서접수 : 연중 계속
원서교부 : 본교 교무부 (061)242-1617

3. 제출서류

입학원서, 주민등록등본 1부, 최종학력증명서, 사진 4매

웨스트민스터목포신학교

Westminster Mokpo Theological Seminary
신학교 학장 : 조광표 박사(MD) 연구원 원장 : 모상련 박사(MD)
530-030 목포시 목포시 연산동 1236-4번지 ☎061)242-1617

목포신학교 순천캠퍼스

순천시 동외동 191-2번지 / 전화 061)744-7004, F.P 010-9049-3731

대한예수교장로회 승리교회

표어 :
내게 능력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빌4:13)



담임목사 오상렬
(본지 상임이사)

주소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 555-1
전화 : 041-564-7004, 041-551-3553



설교

하나님의 보석이 되게 하시는 역사(11)

제6부 -보배로운 산돌(2)

“너는 베드로라” 본문 베드로전서의 사도 베드로가 보석이 되기 이전에는 요나의 아들 시몬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21절 이하를 보면, 예수가 죽임 당하게 될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지 못하고 거부하며 사람의 일만을 생각하던 시몬이었습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2장21절에서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예수의 고난의 길과 십자가의 죽임 당하는 길로 그대로 좇으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33절 겔새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에게 깨어 있다고 몇 번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혼이 심히 슬퍼 죽을 지경으로 기도하고 계실 때에, 한시도 주님과 함께 하지 못했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 1장13절에서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보석으로 만들어서 귀하게 하실 은혜의 생각을 견고히 동이고 깨어있어서 그 은혜를 잊지 말고 끝까지 바라라’고 증거합니다. 이는 푸덕거리리는 새끼 비둘기 같은 요나의 아들 시몬이 변하여 베드로(견고한 돌) 즉 보배로운 돌, 산돌이 됨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26장69절 이하에서 예수와 같이 붙잡혀서 죽임 당할까봐 두려워

예수를 세 번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던 시몬이, 베드로후서 1장14~15절에서 자신이 장막을 떠날 때가 다 되었다고 하면서 순교를 기쁘게 예비하고 있습니다. ‘내가 떠난(Exodus) 후에도 너희가 나를 따라서 순교할 수 있도록 너희가 진리로 견고히 서기를’ 각성시키는 베드로는 죽음을 두려워하던 과거의 그가 아닙니다. 베드로는 이제 하나님의 보석이 된 것입니다.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너는 베드로라.”(마 16:17~18) 하신 주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20장9절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빈 무덤에 가보고서도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후 베드로후서 1장17절 이하에서 지극히 큰 영광을 본 자로서 자신도 부활의 영광을 입을 것을 믿고 증거하는 베드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보배로운 산돌이 된 베드로는 사도행전 4장에서 예수를 죽인 대제사장 앞에서 담대히 증거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처형한 예수를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게 하였고, 성전 미문의 앓은병이를 그 예수가 치료하게 하셨다.”고 담대하게 증거합니다. 또 “예수는 너희 건축자가 버린 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모퉁이의 머

릿돌이 되게 하셨다.”고 담대히 증거합니다. 얼마 전까지도 어린 하녀 앞에서 떨던 시몬 베드로가 변하여 예수를 죽인 대제사장 앞에서 담대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는 에스겔을 금강석처럼 강하게 하심과 같은 역사입니다. 금강석 같이 된 베드로는 더 이상 요나의 아들 시몬이 아닙니다. 또 시몬 베드로도 아닙니다. 주께서 “너는 베드로라.” 하신대로 금강석 같이 견고하고 보배로운 돌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까지 살핀 바와 같이 베드로전서 2장5절의 말씀은 우리도 보배로운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산돌들이 되어지고 영적인 집으로 지어진다는 것입니다. 보배로운 믿음과 그릇이 되어 보배로운 피를 흘린 이후에야 비로소 보배로운 돌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나’를 보석으로 만드시는 분

벤전 2:4~5 사람들에게서 정녕 버림 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은 귀중한 산돌이신 그분께 나아와서 너희도 산돌들로서 영적인 집으로 지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영적인 제물들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느니라.

우리를 영적인 집을 지으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께 나아오면 우리는 그분과 함께 산돌들로서 영적인 집으로 지어진다고 말씀하

십니다.

히브리서 3장6절에서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기쁨을 끝까지 붙잡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3절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집이며 예수님은 그 집을 지으신 분이기에 때문에, 모세보다 그리스도가 더욱 존귀하다고 했습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영적인 집으로 지으시는 분입니다.

육신이 거하는 집은 사람이 짓고, 육신의 몸은 부모로부터 받아서 결국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적인 집은 예수 그리스도가 지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기쁨을 끝까지 붙잡으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영적인 집으로 완성시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보석이 되게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도중에 그분의 말씀과 인도를 거부하면 우리는 그의 영적인 집이 되지 못하여, 그분이 재림하실 때 신랑 예수를 맞이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집을 짓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히브리서 3장14절에서 우리가 처음의 확신을 끝까지 견고하게 붙들면 그리스도께 참여한 자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 참여한 자가 되는 것은 그리스도가 오실 때 그에게 붙은 자, 그를 맞이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믿음 안

에서 예수와 함께 하는 자가 되지만, 궁극적으로 예수와 함께 한다는 것은 우리가 영적인 집으로 완성되어져서 예수가 재림하실 때 그를 맞이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중한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오면, 우리는 산돌로서 영적인 집으로 지어지고 또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영적인 제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제사장인 동시에 나 자신이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즉 영적 예배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벤전 2:5). 산제물로 드려지는 영적 예배의 삶을 사는 성도는 능히 7년 환란 때 순교 제물로 보배로운 피를 흘리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이 베드로전서 2장9절에서 ‘너희는 선택받은 세대요,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영적인 집으로 지으시는 분, 하나님의 보석으로 만드셔서 의가 거하는 새 하늘 새 땅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우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욥 23:10~14 그러나 그는 내가 택한 길을 알고 계시니 그가 나를 연단하시면 내가 금같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발걸음을 따랐고 그의 길을 지켜 벗어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에서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의 말씀을 내게 필요한 음식보다 더 귀히 여겼도다. 그러나 그는 생각이 하나시니 누가 그를 돌이킬 수 있으랴? 그의 혼이 원하시는 그것을 그가 행하시는데도. 이는 그가 나를 위하여 정해 두신 일을 행하시며 그러한 일이 그에게 많이 있음이라.

욥기 23장10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택한 길을 알고 계시다고 말씀했습니다. 자신이 택한 길은 바로 예수께서 이루려고 미리 계획하고 정해 놓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예비된 영광인 하나님의 보석으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신 그 뜻을, 우리는 뒤늦게 보배로운 목역을 통하여 알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1절에서 자신을 하나님의 보석 되게 이루시는 주님의 발걸음을 놓치지 않고 따랐다고 했으며, 12절에서 ‘그의 입술의 명령에서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하신 대로 하나님의 보석되는 과정인 순교할 수 있는 신앙으로 올라서기까지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하며 온 것입니다. 14절에서 결론적으로 주님은 자신에게 정해 놓으신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집, 하나님의 보석으로 미리 뜻을 정해두신 대로 만드시 이루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세상의 보석도 귀하고 좋은데, 하물며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보석은 이 세상의 보석과 비교할 수 없는 존귀함과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석으로 영광을 누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조예)으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장한국 목사

주사랑교회 담임
혁신대한교회장
본지 상임이사



칼럼

국민학교가 변하여 초등학교로 명한지도 오래된 것 같다. 또한 사람은 좌측통행, 차량은 우측통행이 변하여, 사람도 우측통행, 차량도 우측통행 하도록 하였다. 국민학교에서 제식 훈련시 선생님의 구령에 따라 앞으로 가면 왼발이 먼저 앞으로 갔는데 그것도 변하여 왜 오른발이 먼저 나가는 지는 잘 모르겠다.

교육의 첫발은 유아교육이 아닌 국민학교에서부터 시작 된다고 본다. 국민이라는 단어는 의무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국민이 의무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국민학교이다. 중학교, 고등학교가 있으므로 그것을 초등학교로 명한 것은 어느 교육가의 뜻인지는 모르겠으나, 이제는 되돌릴 수 없는 초등학교의 명칭으로 이어진 것이다.

초등학교는 여러 가지의 과목을 다양하게 공부시키는 곳이다. 어린 시절의 교육은 장성해서도 잊혀지지 않는 것이다. 학교에서 배운 동요 곡은 노년이 되어서도 고향의 그리움으로 남게 되는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남존이라는 고향이 있는 것이다. 먼 타국에 머무를 경우 그리운 것은 고향인 것이다. 그 남존은 따뜻한 곳, 시냇물이 흐르는 곳, 양지바른 언덕, 작은 교회의 종탑 등 모

두가 그리워하는 것들이다.

우리의 지나간 날들을 되돌아보면 아픔과 슬픔만이 연결된 역사기록이다. 왜전의 압박 속에서 노예생활을 했으며, 광복을 맞이했으나 6.25전쟁의 아픔과 폐허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지를 모르고 허기진 배를 채우고자 생물을 한없이 들어 마신 기막힌 삶을 어떻게 말로 다 표현 할 수 있겠는가? 어른들은 자식들을 먹이기 위해 주린 배를 졸라매고, 보릿고개라 불리는 계절에는 먹을 것이 없어 눈물을 삼키며 살아오신 선조들의 고난의 역사를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오늘 우리는 너무도 잘 살고 있다. 먹을 걱정 없이 살며, 어느 가정에도 자가용이 있으며 정부는 0~2세 육아 비용까지 지원해 주는 천상의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것이다. 또한 세계 속에 한국을 자랑하며, 세계 경제대국에서 주역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금번 런던 올림픽에서 5위의 기록을 세워 세계의 이목을 받고 있는 강국이 되었다.

서영웅 목사

프리타운교회
본지 상임이사



포항교도소 아버지학교 구호 “아버지 제가 아버지입니다”

8월 11일부터 9월 1일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포항교도소에서 수용자 아버지 학교를 시작한다. 금년(2012년)이 벌써 3회째가 되었다.

포항교도소 아버지 학교는 지난 2011년

2월부터 시작하여 2012년 9월 현재 회기를 맞이하여 3회가 되었다. 그 동안 수료자는 1기 35명, 2기 35명, 이번 3기에는 32명으로 총 102명의 수용자가 수료증을 받았다. 특히 이번 아버지 학교를 통해 포항교도소의 김길성



소장은 "여기 온 수용자들은 저마다 사회에 있을 때 각자 자기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였기에 여기까지 왔으므로 이번 아버지 학교를 통해 나는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고 하면서 아버지의 소중한 역할을 발견하는 수용자들이 이번 기회부터 자기 역할의 소중함을 발견하였으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며 훈시했다.

이어 사회복귀과 김홍호 과장은 "이번 아버지학교를 통해 수용자들이 저마다 가정의 소중함을 발견하고, 새롭게 자신의 삶의 문제를 심도 있게 돌아봤으면 좋겠다."는 격려와 함께 9월 7일 아버지 학교를 수료한 수용자들에게 가족 만남의 시간을 마련하여 주었다.

교도소에서 마련하여 준 가족 만남의 시간을 통해 아버지학교를 수료한 수용자들이 어머니의 발과 아내의 발, 아들의 발을 각자가 세족을 하는 모습에서 모두가 진한 감동과 참회의 눈물로 그동안 자신으로 인해 가슴 한 쪽이 망들은 가족들에게 참회의 세족식이 되었다.

포항 이기학 기자

장기요양기관(행복의집)



원장 : 박순중 목사
(본지 상임이사)

가족처럼

어르신(환자)을 모십니다.

(등급판정-1급-3급자 환영)

☎033)541-0687 / 010-7405-9191

www.1004tv.net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늑구리

사랑.섬김.행복이 가득한

강릉 정동진 산성그리스도의교회

SANSEONG CHURCH CHRIST

부설/장기 요양원 정동진 회망원



담임목사 최낙현 원장

- ◎ 국제 153부흥협의회 대표회장
- ◎ 세계교회부흥협의회 운영회장
- ◎ 천안총회신학신대원설천신학교수
- ◎ 서울 칼로신학연구원 교수
- ◎ 지저스타임즈 상임이사

예/배/시/간/안/내

▣ 주일 오전 10시30분 ▣ 주일 오후 1시 1시30분 2시

210-822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산성우리 255-12
TEL:(033)655-0691,0692 / H/P:010-6409-0091

E-mail:cnh1091@hanmail.net

MTR-school 성경 연구원

구역(벤아세르 MT)과 신약(TR원문)에

의한 강의로 사도교회로 돌아가는 신앙인 교육

- 계시록원전
- 히브리어문법
- 헬라이어문법(전 준덕 교수)
- 일기 쉬운 52주 헬라이어문법 저자강의
- 영어문법
- 계시록



원장 김수정
(jntv방송신문 운영이사)

- 일시: 매주 화 오전 10시부터 강의 시작
- 장소: 다메섹교회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도평리 산1번지
031-765-2791, 010-2787-1038
- 문의: 031-767-7651, 010-6202-6312
김수정 원장(010-7520-7651)

지저스타임즈 광고안내

www.cpj.kr(크리스찬포토저널)

CPJTV인터넷방송

www.jtntv.kr(jtntv방송)

JTNTV인터넷방송

인터넷방송: 배너광고 및 팝업광고에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전국 21개 지사와 해외 26개 지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나날이 발전하고 성장하는 신문과 인터넷방송입니다.

지면을 통한 신문 지저스타임즈(격주신문)가 있어서 광고에 힘쓰고 있습니다.

신문과 인터넷TV방송에 광고를 보내주시면 최선을 다하여 힘쓰겠습니다.

본 사: E-mail: jtntv@hanmail.net

웹 하 드: ID: cpjkr PW: km1122

본사문의: 032-672-3031(팩스겸용)

070-8230-0034

대 표: 010-5468-6574

본 사: 서울시 종로구 인의동 48-26

편 집 국: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지양로 176번길 32 (대운빌라 2층 202호)

세계주영광부흥사협의회 부흥사 연수 · 정기총회



제3기 부흥사 연수 및 제7차 정기 총회

세계주영광부흥사협의회(이하, 제주부협)는 실행위원회를 열고, 부흥사 연수와 총회 날짜를 정하고, 지난 3박 4일간의 일정으로 제천에 소재한 “나들목 기도원(원장 구생수 목사)”에서 행사를 가졌다.

이날 연수 및 총회에는 태풍이 부는 와중에도 전국에 흩어져 있던 제주부협 소속 부흥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뜻 깊은 일정을 보냈다.

개회예배 설교는 연수원장 겸 부총재인 이재원 목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 드리고 새롭게 되라!”는 제목의 설교를 하

였고, 신임 대표회장 광영민 목사가 폐회 예배 대신에 몇 가지 당부의 말을 전하였다.

제3기 연수 강사로는 아침 성회는 상임회장 김영환 목사, 서기 및 실무회장 전진성 목사, 자문 박길영 목사가 각각 설교를 하였으며, 강의는 사무총장 광영민 목사, 신임자문 박길영 목사, 자문 및 신임연수원장 정기환 목사, 신임부총재 정기남 목사, 총재 이재갑 목사가 각각 강의를 하였다.

제7차 정기 총회에서는 시종 은혜로운

세주부협은 명실공이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는 부흥사 단체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제5대 대표회장직을 맡게 된 광영민 목사는 인사에서 “회원들이 불별더위 속에서도 아랑곳하지 않고 철저하게 야전 부흥사들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시는 모습을 보며 감동을 받았으며, 그저 한국교회와 기도원을 살려보겠다는 일념하나만으로 뽕뽕 뭉친 제주부협 식구들께 감사를 드리고, 세주부협은 내노라 하는 단체는 아니지만 순수함과 복음의 열정으로 만들어진 단체이기에 하나님 보실 때에 기뻐하시리라 확신하며, 이제 사무총장이라는 무거운 직분을 내려놓고 대표회장이 된 입장에서 지난날 때로는 마음 아픈 일들도, 서로의 의견차로 인해 아픔을 겪었던 지난날들을 돌이켜보며 이제 7회기를 통해 서로 간에 아팠던 상처들이 싸매어졌으면 한다”고 했다.

아울러 “바라기는 우리 부흥사 단체가 이제 한 단계 발돋움 하기 위해서는 직급이 명예가 아닌 섬기기 위한 자리임을 알아야겠으며, 말만이 아닌 행함으로 성실히 모임과 성회에 임해야할 것이며, 부흥사 연수를 통하여 한국교회를 살리는 부흥사들이 배출될 터인데 인격적인 부흥사들이 되길 바라며, 무명하지만 귀하게, 가려서 다니는 부흥사가 아닌 철저한 야전 군인과 같은 부흥사들이 되어서 값지게 쓰임받기를 바란다”고 인사를 하고 소감을 밝혔다.

강사단장을 맡으면서...



박수영 목사
세계주영광부흥사
협의회 강사단장

“누군가 해야 할 일이라면 내가 먼저 하고 언젠가 해야 할 일이라면 지금 당장하고 어차피 해야 할 일이라면 기쁘고 즐겁고 신바람 나게 하라”

들어 나 보았는가? 너무 잘나가고 멋있고 아름다운 세계주영광부흥사협의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가를 말이다. 제7차 정기총회를 마치고 지저스타임즈 대표이사 정기남 목사님으로부터 강사단장 유임에 대한 소감을 요청받고 감동 또 감동 먹었다.

별은 빛을 발하고 방향을 알려준다. 하나님께서 영적인 능력으로 불잡아 주시고 어두움을 밝히며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는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많은 사람들에게 빛을 발하고 방향을 알려주는 역할을 잘 감당 하는 부흥사단체가 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 한국에는 수 많은 부흥사들이 활발히 섬기며 사역하고 있다. 세계주영광부흥사협의회는 여러 부흥사단체 가운데 또 하나의 단체가 아니라 지구촌을

이번 강사단장을 맡으면서 임기 기간 동안 부흥사들 간의 소통을 통한 화합을 이끌어 내기 위해 다양하고 유익한 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지역단간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좋은 아이디어를 정책에 반영하고 부흥사들의 결집력을 키울 계획이다. 또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냄으로써 믿음과 예수 십자가의 사랑이 풍성한 조직 기반의 안정을 다져 나가도록 열심히

어차피 해야 할 일이라면 기쁘고 즐겁고 신바람 나게 하라”명분으로 포근하고 아름다운 부흥사단체, 인간미의 정이 넘치고 활기가 찬 부흥사들이 되도록 소통을 통한 화합을 도모할 것이다. 화합이 곧 부흥사들의 능력이며 역량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이렇게 크게 쓰임 받으시며 귀한 직분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하며,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치유로 영혼구원에 적극 힘쓰기 위해 꿈과 열정과 집중을 다해 섬기리라 다짐해 본다.

총재 이재갑 목사님과 세계주영광부흥사협의회 회원 모든 분들을 감사하고, 큰 직분을 맡았으니 나 자신을 날마다 채찍질하며 최선의 경주를 할 것이다.

세계주영광부흥사협의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온 천하에 들어내며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해서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리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분회 회원들은 예수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뜨거운 사랑과 기도와 적극적인 관심을 소망해 본다.

영원 구원을 위해 열정 넘치는 부흥사로

교구로 삼아 열방을 가슴에 품고 나라와 민족의 복음화를 주도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을 것을 확신 한다.

창립 7주년을 맞이하는 만큼 신임 회장 광영민 목사님과 적극 협력하며 7년 동안 걸어 온 발자취를 기록으로 남기면서 보다 생산적이며 바람직한 미래를 펼쳐 갈 세계주영광부흥사협의회 100년 대계의 기초를 다져 나갈 것이다.

이런 강사단장을 맡으면서 임기 기간 동안 부흥사들 간의 소통을 통한 화합을 이끌어 내기 위해 다양하고 유익한 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지역단간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좋은 아이디어를 정책에 반영하고 부흥사들의 결집력을 키울 계획이다. 또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냄으로써 믿음과 예수 십자가의 사랑이 풍성한 조직 기반의 안정을 다져 나가도록 열심히

광영민 목사 심령회복 성회



사무국장 광영민 목사

경인부흥사협의회 기획처장,
세계 한민족 복음화 부흥사 협의회 실무국장,
세계 주영광 부흥사 협의회 상임회장 및 사무총장,
지저스 타임즈 인천지사장 및 본사 사무국장,
백석총회 인천노회 소속,
(예·장)등불교회 담임,
예수능력 치유 센터 설립 및 원장,
온누리 선교회 21대 회장.

“부흥회 및 부흥사 연수 요청” 010-2080-0651

성 · 회 · 일 · 정

9월: 3일(월)~5일(목) (순천)에바다 기도원(원장: 정정주 목사)
11(화) 제주부협 정기 월례회/ (천안)찬양교회(담임 신명숙 목사)
17일(월)~20일(목) (인천)은총기도원 연합성회(원장: 주은총 목사)
27일(목) (인천)예수능력치유센터 목요 성회(원장: 광영민 목사)

10월: 8일(월)~11일(수) (인천)벧엘교회 연합성회(담임: 정성준 목사)
15일(월)~18(목) (김포)축복은혜 기도원 성회(원장: 박용주 목사)
21(주일)~24일(수) (인천)은총기도원 연합성회(원장: 주은총 목사)
25일(목) (인천)예수능력치유센터 목요 성회(원장: 광영민 목사)

“세계주영광 부흥사 협의회”에서 함께 하실 부흥사를 모집합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등불교회 · 예수능력치유센터
http://kmission.onmam.com
cafe.daum.net/kmission



☎032-891-0651, 010-2080-0651

담임목사: 광 영 민

“생명의 강이 흐르는 옥천을 만들자”

옥천성시화운동본부 창립

본부장에 윤병한 목사 취임

충북 옥천성시화운동본부가 9일 오후 3시 옥천교회(담임목사 윤병한 목사)에서 출범예배를 드리고 옥천성시화를 위한 힘찬 발걸음을 내딛었다.

출범예배에는 충북성시화운동본부 대표회장 정삼수 목사(청주상당교회), 충북성시화운동본부 부본부장 최건작 장로, 충북성시화운동본부 교육훈련원장 송주형 목사(청주CCC 대표), 정우택 국회의원, 박득흠 국회의원, 김영만 옥천군수, 김재종 도의원, 세계성시화운동본부 사무총장 김철영 목사 그리고 옥천지역 목회자 40여명과 성도 300여명이 참석했다.

이정복 목사(옥천성시화운동본부 사무총장)의 사회로 시작된 예배는 남기일 목사(옥천군기독교연합회회장)의 대표기도, 옥천교회 엘립중창단의 찬양에 이어 정삼수 목사가 ‘거룩한 성(城)’(제22:1~5)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정 목사는 “오늘부터 옥천에 생명의 강이 흘러가는 것이 되기를 바란다.”며 “이를 위해 영적 권위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목사는 “인간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는 곳은 하나님의 교회이다.”라며 “성시화운동을 통해 옥천지역 교회들을 네트워크화 하여 썩은 물이 다시 생수로 변화하는 역사가 일어나 이 도성을 치유하고, 복음이 봄바람이 불어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수동 목사(옥천성시화운동본부

회계)의 현금기도에 이어 열린 취임식에서는 정삼수 목사가 윤병한 목사에게 취임패와 옥천성시화운동본부 깃발을 전달했다.

본부장으로 취임한 윤병한 목사는 어거스틴의 <하나님의 도성>을 인용하면서 “세속도시가 끝나면서 거룩한 도성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세속도시가 시작되면서 거룩한 도성의 씨가 잉태되어 있다.”며 “거룩한 도시화의 성시화의 역사는 이미 시작됐다. 옥천 성시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송주형 목사가 성시화운동 공동기도문을 인도했고, 김영만 옥천군수가 축사를 했다.

세계성시화운동본부 사무총장 김철영 목사는 격려사와 성시화운동사역 소개를 통해 “인구 6만2천의 옥천군이 90여 교회가 힘을 모아 기도운동, 전도운동, 사회책임을 감당하여 행복한 군민, 건강한 가정, 깨끗한 군, 부흥하는 교회를 만들기를 바란다.”고 격려했다. 또한 2012유럽성시화순회대회, 투표참여캠페인, 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 활동 등을 소개했다.

취임식은 이종선 목사(옥천성시화운동본부 교육훈련원장)의 성시화구호제창과 정삼수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정삼수 목사는 “옥천에 이어 보은, 영동군 순서로 충북 도내 시군 성시화운동본부를 조직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정합니다. 지난 57호 1면 Rise Np는 Rise Up으로 바로잡습니다

기적의 치유집회



강사 박수영 목사

- 행복샘전인치유센터원장
- 세계주영광부흥사협의회 강사단장
- 기독교인터넷방송부흥협의회부총재
- 지저스타임즈 대구지사장
- 등부노회 노회장
- 행복샘교회 담임목사

집회 고침받은 내용

- ☆ 최병옥 : 심장병으로 숨막히고 쥐어짜는 고통에서 고침받음
- ☆ 류정호 : 만성변비로 가야기독대학병원에서 퇴원 장래준비중 고침
- ☆ 김소영 : 류머티즘관절 평생지병 집회중 선포 기도로 고침받음
- ☆ 남영수 : 재생불량성빈혈 경대병원 매주 수혈받으며 투병하다 고침
- ☆ 김영자 : 만성두통과 불면증으로 10년 동안 고생하다 고침받음
- ☆ 박수영 : 30년동안 피부병으로 고통받다 치료받은 이것이 나의간증
- ☆ 강복희 : 뇌경색으로 왼쪽 전신 마비되어 투병하다 집회중 고침받음
- ☆ 김복자 : 고혈압 20년 지병 정상으로 고침받음
- ※ 이 외에도 많은 간증문이 있습니다.

집 회 특 징

- ♥ 신유, 예언, 상담이 정확함(사 11:2, 요엘 2:28)
- ♥ 병 고침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난다(행 19:11-12)
- ♥ 원인 불명의 불치병 치료 역사가 나타난다(시 41:3)
- ♥ 성령의 기름부음으로 온사 접촉과 회복의 역사가 나타난다
- ♥ 회개와 방언의 온사가 나타난다(막 16:17-18)
- ♥ 사명이 회복(목회, 전도, 봉사, 섬김)되는 성회(행 4:11-12)
- ♥ 첫 사랑과 전도의 열정이 회복된다(신 6:12)
- ♥ 영권, 인권, 물권 열리는 성회(대상 4:10)
- ※ 일일간증집회, 헌신예배, 금요철야기도회, 2박 3일 성회, 교회형편대로

담임목사: 010-8537-8291 / 교회: 053) 752-8238

대한예수교장로회

개혁총회신학

• 신입생 · 편입생 모집 •

본교는 대한예수교장로회 개혁총회 인준 신학으로서 칼빈주의 사상에 깊은 뿌리를 내린 개혁총회신학입니다. 유능한 교수진을 확보하여 성실히 교육하는 교육기관입니다.

▶모집과정

과정	학 제	지 원 자 격
신 학 부	8학기 140 학점 (주 · 야)	• 세례를 받은 자 • 성별 연령에 상관없이 사명자 • 성별 연령에 상관없이 사명자 • 전문대 졸업자는 3학년에 편입됨
대 학 원 부	4학기 90 학점 (주 · 야)	• 신학부에서 각 과정을 이수한 자 • 타 신학 또는 이수한 자 • 타 신학에서 중퇴 자는 해당 학기에 편입됨
동 신 신 학	교재이수	• 사명자 누구나 신학공부 가능한 • 학력 연령 남녀 제한 없이 등록 가능함 • 졸업 후 본교에 편입될 수 있음

▶특 권

1. 방학 없이 1년 4학기 수업으로 조기졸업이 가능함.
2. 여목 제도가 잘되어 있음.
3. 다양한 장학제도가 있음.
4. 본 과정은 지역 캠퍼스가 동등.
5. 대학원부 졸업자는 강도사 고시 합격후 노회에서 목사 임직됨.
6. 통신 신학 졸업자는 본교 신학부 3학년에 편입될 수 있음.

▶입학 서류

- 입학원서, 사진, 주민등록 등본
- 편입 자는 졸업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제출

화곡동 캠퍼스	성남 캠퍼스	수유동 캠퍼스
서울 강서구 화곡동 839-15 5호선 목동역 4번 출구 H.P 010-6282-0707	성남시 중원구 희망로 400번길 10-1 H.P 010-8320-9125	서울시 강북구 수유1동 484-80 전철4호선 수유 역 3번 출구, 3번 새마을 버스 매표고 앞 하차 H.P 010-3758-8905



주님과 함께하는 가정예배 소진우 목사(예복 교회 담임 / 본지 사장)



소진우 목사

- 예복교회 담임
- 지저스타임즈 · JTNTV 방송 사장
- 라이프드림스 총재
- 극동방송 칼럼리스트
- 백성TV 칼럼리스트
- CTS 칼럼리스트

1. 내 구주를 더욱 사랑

성경: 에스겔 24장15절-20절 찬송가 359장

에스겔은 이스라엘 족속들이 당하게 될 슬픔이나 고통을 행동을 통하여 예시해 주곤 했습니다. 아내의 죽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이 기뻐하는 아내를 에스겔로부터 나누셨듯이 패역한 이스라엘이 기뻐하는 것을 그들로부터 분리시키겠다는 계시적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에스겔의 아내에게 입한 죽음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사랑하고 아끼는 것들이 누구에게서 온지 모른채 살아가다 하나님께서 다시 거두어 가시기 전에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 드리며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가정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2. 진정과 신령으로

성경: 에스겔 24장21절-27절 찬송가 167장

이스라엘 족속이 영적 도덕적으로 심히 부패하고 타락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와의 성소는 그들의 기쁨의 일부였습니다. 즉 경건이나 신앙과는 관계없이 그들의 세력의 영광이요 마음에 아낌없이 되었던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서 아내를 분리시켰듯이 당신의 성소 또한 더럽힘을 당하게 하시겠다는 의도였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없고 진심이 없는 찬양과 예배는 받지 않으십니다. 오늘날 우리 가정들의 모습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진정과 신령으로 찬양하고 예배하는 가정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3. 말이 씨가 되어서

성경: 에스겔 25장1절-17절 찬송가 215장

본문을 보면 오늘날 혼합주의 신학과 같이 모

양은 하나님을 이방우상의 신들과 동일시하려고 하는 악한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그들은 절대자 하나님을 모독하고 용서 받지 못할 단죄의 칼을 스스로 자초하게 된 것입니다. 말로써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는 가장 무서운 죄악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 가정들 또한 내가 말한 것이 씨가 되어 내게 돌아온다는 것을 분명하고 우리의 기술이 하나님을 영광을 올려 들리는 곳에 사용하는 가정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4. 하나님의 마음을 간직하고

성경: 에스겔 26장1절-6절 찬송가 335장

두로는 이미 정신적으로 혼음하여 예루살렘을 치고 그들의 피를 달게 마셨던 잔인한 자들이었습니다. 혼합주가 더 독하듯이 혼합된 마음은 더욱 악한 것입니다. "남을 치고나서 아하 좋다"하는 그들의 언동이 곧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정신적인 혼음이 얼마나 무선운가를 분명히 알고 오직 하나님의 마음을 간직하며 주의 순결한 신부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가정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5. 얼굴의 얼굴값

성경: 에스겔 26장7절-14절 찬송가 262장

본문을 보면 얼굴에 잔악의 분을 바르고 무죄한 피로 입술을 그리며 향락을 찬양하던 두로가 최후를 맞게 되었습니다. 열왕의 왕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의 말과 병거와 기병과 군대와 백성의 큰 무리를 거느리고 와서 두로를 치고 칼로 죽이며 도끼로 망대를 찢고 재물을 빼앗을 것이며 노래와 수금소리가 애통으로 바뀌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는 두로를 심판하기 위한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가정들은 두로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살펴 보면서 죄악과 멀리하는 가정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6. 헛되고 헛된 것들

성경: 에스겔 26장15절-18절 찬송가 327장

본문을 보면 유명함도 견고함도 모든 거민을 두렵게 했던 위용도 이제는 헛되고 헛된 것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 무너지고 멸망하는 소리에 섬들이 진동하고 놀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무섭게 무너지는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산 것들은 이렇게 헛되고 무섭게 무너지고야 만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두로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가를 확실히 알고 우리의 죄를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자 노력하는 가정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7. 하나님만 의지하는 가정

성경: 에스겔 26장19절-21절 찬송가 383장

본문에 두로가 하나님 앞에 설수없는 자로서

낙인지 찍히고 파멸의 길을 가야한다고 했습니다. 두로는 하나님의 진노를 당해서 역사적으로 느부갓네살왕 압력산더 대왕 십자군 등의 침략이 계속되어 전쟁마당이 되고 아무도 살 수 없는 황무지 성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의인이 보이지 않을 때 슬퍼하시고 죄악으로 관영할 때 심판하십니다. 그렇기에 오늘 오리 가정들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가정들이 하나님의 심판이 아닌 하나님의 예비된 복을 받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8. 결만 치장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에스겔 27장1절-11절 찬송가 340장

본문을 보면 애가를 지어 부르라고 하신 뜻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헛된 일에만 기울인 까닭으로 망하게 된다는 의미였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진정한 미는 어떤 조화된 색깔에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됨됨이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인격적인 품위와 지적인 향기에서 찾아 볼 수 있는데... 진정한 아름다움은 속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두로는 헛된 것으로 망했습니다. 그렇기에 육적인 삶을 위해 살기 보다는 영적인 삶을 중시하여 하나님께 칭찬받으며 살아가는 가정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9. 더욱 더 낮게 엎드려

성경: 에스겔 27장12절-25절 찬송가 329장

본문을 보면 두로는 육에 속한 영광을 취한 나머지 그 뒤에 오는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알골은 취했다가도 그 기운이 다하면 제 정신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사람이 좀처럼 깨어나지 못하고 어찌된 일평생까지라도 그 취중에서 허우적거리는 술이 있습니다. 그것은 두로가 겪고 있는 행동과 부기의 술입니다. 오늘날 우리 가정들은 지금 내가 배부르다 만족하지 말고 그럴 때 일수록 하나님께 더욱 낮게 엎드려 기도하는 겸손의 가정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0. 예수님의 손을 꼭 붙잡고

성경: 에스겔 27장26절-36절 찬송가 187장

이제 두로의 무대는 끝이 났습니다. 열국의 상고들이 두로를 비웃고 경계 거리를 삼게 되는데까지 두로는 몰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환락의 한밤을 새우고 나온 어리석은 짐승과 같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로 나아오지 않는 자들은 영원히 불 가운데 들어가는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가정들 또한 우릴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꼭 붙잡고 살아가는 가정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1. 늘 겸손함으로

성경: 에스겔 28장1절-10절 찬양: 찬송가 431장

하나님은 두로 왕이 자신의 재물과 지혜로 교

만해서 자신을 신격화 했기에 단호히 심판하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교만은 대개가 무지로부터 오는 인격적 결함증세입니다. 두로 왕은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중심에 앉았다"라고 하기까지 병세가 악화되어 버렸습니다. 오늘날에도 신앙인들에게까지 황금의 신, 명예의 신, 탐욕의 신들이 편재해 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날 우리 가정들은 교만의 마음을 버리고 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2. 주의 뜻이면 내가 나아가리라

성경: 에스겔 28장11절-19절 찬송가 403장

본문을 보면 두로도 옛적 예덴과 같은 영광 속에서 쾌락을 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로는 그 왕의 소유한 보석들과 재물이 무수히 많았습니다. 그는 날마다 취객처럼 "영광이여 영원하라"고 노래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병든 양심이 보석 빛에 가리우고 그들의 날개로 그 썩어진 곳을 가리고 있는 이상 하나님의 진노는 쉬지 않았습니 다. 그렇기에 오늘날 우리 가정들은 우리의 영광을 위해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이면 내가 나아가리라"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가정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3. 순종하는 가정

성경: 에스겔 28장20절-26절 찬송가 319장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시돈인들에 의해 큰 치욕을 당하였기에 이제 하나님은 시돈에게 최후 통첩을 내리셨습니다. "내가 그에게 열병을 보내며 그의 거리에 피가 흐르게 하리니 사망에서 오는 칼에 상한 자가 그 가운데 엎드려질 것인즉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겠고" 이 말씀은 시돈의 땅을 황폐하게 하며 생명을 멸하시겠다는 심판의 말씀입니다. 그렇기에 오늘날 우리 가정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 말씀대로 살아가는 순종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14. 영의한 주의 말씀

성경: 에스겔 29장1절-7절 찬송가 349장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바로의 교만을 꺾고 이스라엘이 다시는 인간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애굽을 심판하셨습니다. "너는 자기의 강들 중에 누운 큰 악어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 이 강은 내 것이다.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여기서 악어는 악자를 삼키는 동물로서 수종의 재앙을 상징하고 강은 악어의 평안한 서식처를 의미합니다. 이 땅 위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영원한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영원한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가정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폭력과 그 대책

요즈음 성폭력 문제 앞에서 인간이 짐승이 되어가고 있다는 생각을 피해가가가 어렵습니다.

피해를 입은 어린이들을 어찌하겠습니까? 우리 어른들은 어떻게 낯을 들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영적인 존재인지라 자랄 때에 밥만이 아니라 사랑을 먹고 자라야 합니다. 사랑을 먹고 자라지 못하면 결국 변태적 사랑-폭력적 사랑으로 끌려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의 이 인간답지 못한 행위의 해결은 첫째는 사랑의 밑거름을 듬뿍 줄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둘째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이들을 돌보는 사회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셋째는 공동체성을 회복시켜야 합니다. 우선 사랑만 있다면 소망이 있습니다. 저는 노숙인 형제들을 만나서 지내는 것이 7년 되었습니다. 수년 전만 해도 그 고약한 냄새 속에서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술 취한 채로 오는 이도 많았습니다.

그간 성폭력 범죄자들에게 전자 발찌를 채웠습니다. 그것이 해결책이었습니까? 마찬가지로 너무나 쉽게 화학적 거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장 너무도 위험하기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식었기 때문에 내놓는 대책은 아닌가 합니다. 결국 사랑이 없는 세상이 만든 이 심히 병든 자들을 사랑이 없는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문제입니다. 화학적 거세의 비용은 1회에 2백만 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몇 주에 혹은 한두 달에 한번은 주사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그 비용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 비용으로 인간적인 접근을 한다면 과연 그들을 그 악에서 구하여 내지 못하겠습니까? 사회적 대책도 없이 처벌도 제대로 하지 않은 그간의 무책임이 이제사 처벌만 강화하고 사회적 인간적 해결책을 내놓지 않는다면 이 역시도 문제의 해결은 되지 못합니다.

일종의 보복의 악순환이 되고 말 것입니다.

범법자에게는 처벌을 해야 하지만 이들을 다시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오게 하고 더 나아가 악을 저지르지 않는 토양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길을 가기 전에 주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내가 죽고 주의 길로 나서게 됩니다.

〈산마루서진 이주연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 빛과소금교회

교회 표어: 주님 내 안에 나 주님 안에

담임 이재갑 목사
웨신총회 총회장
본지 상임이사

21세기 비전
(1) 하늘에 성금을 쌓아 쌓은 교회
(2) 온례와 전라가 가득한 교회
(3)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교회
(4) 땅끝까지 전교하는 교회

2012 목회 지침
네 장막터를 넓히라 (사54:2)
성령의 장막터를 넓히자 —은사
영혼구원의 장막터를 넓히자 —세계선교
성경의 장막터를 넓히자 —성경
축복의 장막터를 넓히자 —니눔

부목사: 송승길
장로: 박광순 김혜자
전도사: 임시량 최원희 박애스더
협동전도사: 김신애

(우)139-818 서울시 노원구 상계5동 169-198
☎ 02)938-3521, 010-3228-3521
(빛과소금교회 수양관) 경기도 가평군 북면 화악리 116-5

대한예수교장로회 안천교회 ANCHEON PRESBYTERIAN CHURCH

표어: 주 안에서 줄게서는 교회(골로3:8)



담임 유영섭 목사

안천의 3대 비전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성도
변화된 세상

◆ 예배와 교육안내 ◆

예배	주일 낮 예배: 1부(오전11시) 2부(오전1시) 새벽기도회: 새벽 5시 주일찬양예배: 오후 2시45분 구역 예배: 각구역별로 수요저녁예배: 오후 8시 수요기도회: 오후 9시
주일학교	유치부: 유취부설(성경)오전11시 초신학교: 초신학교(성경)오전11시 아동부: 아동부설(지리)오전9시 영아부: 영아부(오전10시30분) (총영아부설)
평신도교육	새가족: 주일 오전10시20분 성경연구: 화요일 오후8시 성경말씀: 아동부설 주일 오후 1시 배달성경: 목요일 오전10시, 오후8시

(445-380) 경기도 화성시 안남동 138-153
Tel.(031) 234-0511, Fax.(031) 234-7751

대한예수교장로회 주사랑교회

담임 장한국 목사
(본지 상임이사)

- 선교사: 김경자
- 강도사: 장정훈 이진영,
- 전도사: 장성철,
- 반주자: 한진경, 한송이

예/배/시/간/안/내

예배	시간	예배	시간
주일 대 예배	낮 11시	주일학교	오전 9시
주일저녁예배	오후 2시	학생회	토 오후 5시
수요 예배	오후 7시30분	청년회	토 오후 6시
새벽 예배	새벽 5시	여전도구역예배	금, 낮 11시
금요철야예배	밤 9시	남전도구역예배	매일 토, 저녁 6시

(우 473-080) 경기도 의왕시 내손동 748 대림프라자 7층
전화: (031)424-7612 / H.P: 010-4436-7060

대한예수교장로회 온누리찬양교회 All Nations Praise Church



담임 임찬미 목사

초대합니다.
찬양과 말씀 축복성회 영적으로 지지하고
힘들며 아무도 위로가 되지 않아 낙심될 때에 괴로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곁에 주님이 계십니다.
당신을 사랑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성기는 분을

담임목사: 임찬미 목사
장로: 최원영 선교사
전도사: 전은혜 선교사,
함다나엘 선교사,
조에스더 선교사,
황연아 선교사
전도사: 정희선 선교사,
이부자 선교사
반주자: 박시은 박시내 정은주

예·배·시·간

주일 낮 예배: 주일 오전 11:00
주일학교: 주일 오전 9:00
주일저녁찬회: 주일 오후 7:30
청년부 예배: 주일 오후 2:00
심야기도회: 매일 오후 9:00
학생부 예배: 주일 오전 9:00
축복성회: 매주 금, 토 저녁 9:00~
주요 예배: 수요일 오후 8:00
매주 주일 저녁 7:30~

찾아오시는 길



506-800
광주광역시 광산구 도산동 773-3호
☎ 010-4932-7277
070-7443-7277

감리교, 세습방지법안 통과… 교계 크게 환영

임시입법총회 무기명 투표 결과 찬성 62.8%로 통과 돼

찬성 245명, 반대 138명, 무효 및 기권 7명

교계는 물론 세간의 관심을 모았던 기독교대한감리회(임시감독교회장 김기택, 이하 감리교)의 소위 ‘세습방지법안’이 통과되자 여러 교계 단체는 기갑의 결정을 크게 환영하고 나섰다.

기독교대한감리회는 25일 서울 정동제일감리교회에서 제29회 총회 임시입법의회를 개최하고 장정개정위원회가 제안한 개정안에 대한 통과 여부를 조항마다 표결에 붙였다. 그 결과 관심을 모았던 소위 ‘세습방지법안’은 390명이 무기명 비밀투표에 참여해 찬성 245명, 반대 138명, 무효·기권 7명으로 통과됐다. 찬성률은 62.8%다.

[장정 제3편 조직과 행정법]의 ‘제36조 담임자의 파송’항에 ‘부모가 담임자로 있는 교회에 그의 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는 연속해서 동일교회의 담임자로 파송할 수 없다’(2항)와 ‘부모가 장로로 있는 교회에 그의 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는 담임자로 파송할 수 없다’(3항)를 신설한 것이다.

‘세습방지법안’ 표결 방식과 관련 의장인 김기택 임시감독교회장은“역사적 의의

를 새겨보자”며 기립투표 방식을 제안했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역사적 현장을 지켜보는 많은 이들의 시선을 의식할 수밖에 없도록 압박하자는 의도였다.

그러나 거수에 의해 무기명 비밀투표 방식이 의결됨으로써 ‘혹시나’ 하는 분위기가 장내에 감돌았다. 하지만 ‘혹시나’ 하는 생각은 말 그대로 기우였음이 개표결과 드러났다. 개표결과가 발표되자 여기저기서 환호와 박수가 터져 나왔다.

이로써 감리교에서는 향후 아버지가 아들에게, 장인이 사위에게 담임 목사직을 물려주는 것은 물론, 부모가 장로로 있는 교회에 그의 아들 또는 사위를 담임자로 세울 수도 없게 됐다. 한국교회사상 처음으로 감리교에서 소위 ‘세습방지법안’이 통과되자 교계 안팎에 환영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특히 KBS와 SBS 같은 일반 언론들은 이례적으로 이를 메인 뉴스를 통해 보도했다.

기운실은 성명서를 내고“기독교감리교의 세습방지법은 한국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불신 받고 있는 상황을 생각할 때, 자



발적으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신뢰를 얻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다른 교단들도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관계자도 “이번 입법이 한국교회가 자정 노력을 기울이고 교회 본연의 모습을 회복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미래목회포럼은 “교회 사유화하는 세습금지법을 전격 통과시킨 감리교의 입법을 환영한다”며 “이를 계기로 공교회성이 회복되길 바란다”고 논평했다.

한편 이날 상정된 선거와 관련된 개정안들은 선거기간을 현행 90일에서 20일로 줄이는 안만 통과되고, 나머지는 다 부결됐다. 또한 김국도 목사의 피선거권을 회복시켜 보려고 235명 회원의 서명에 의해 발의된 개정안도 과반 이상을 득하지 못해 부결됐다. 하지만 감독회장 유고시 30일 이내에 총회 실행부위원회를 소집해 연회 감독 중에서 감독회장 직무대행을 선임키로 한 개정안은 통과됐다.

김천소년교도소 보라미봉사단 ‘태풍피해복구 봉사활동’ 실시



김천소년교도소(소장 박호서)에서는 수행자, 직원 및 교정위원으로 구성된 보라미봉사단은 9월 21일 제16호 태풍 ‘산바’로 큰 피해를 입은 김천시 대방리 소재 ‘보람이농원’을 찾아 태풍 피해를 입은 농민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고자 산사태로 매몰된 농지 복구를 위한 자원봉사활동을 실시하였다.

이번 태풍 ‘산바’로 인해 많은 피해를 당해 상심이 깊었던 농민 박○○씨는“갑

작스러운 태풍 때문에 피해가 커 걱정이 많았으나, 이렇게 김천소년교도소의 도움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추석을 보낼 수 있게 되었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김천교도소에서는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수행자들에게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활동을 하게 함으로 그동안의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보게 함과 동시에 봉사의 기쁨을 통해 반성의 기회를 마련하고 출소 후에는 건전한 사회인으로 정착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큰 의미가 있다고 여겨진다. 이번 사회봉사에 참석한 한 수행자 이○○(18세)는“ 저희 고향에서도 이번 태풍으로 작지 않은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들었는데, 비록 부모님이 계신 고향은 아니지만 이렇게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어 큰 보람을 느낀다.”며“이번에 출소하면 가족들과 함께 열심히 살아 나갈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김천소년교도소 박호서 소장은“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하루빨리 안정을 되찾아 다가오는 한가위에는 수확자를 포함한 우리 국민 모두가 더욱 더 따뜻한 사랑을 나누는 나날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 동안 김천소년교도소는 수행자들이 제과제빵 직업훈련장에서 직접 만든 빵을 인근 아동복지센터와 배다니성화원에 제공하고 있으며 명절에는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 및 결연마을의 독거노인들에게 위문품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실시하여 지역 내 사랑 나눔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고 있다. 또한

교정본부에서는 앞으로 수행자들이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시간을 더 확보하여 사회의 일원으로써 적응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교정본부 사회복귀과 과장인 신용해씨는 앞으로의 계획을 밝히기도 하였다.

포항 이기학 기자(포항지사상)

한기총, 예장(통합)의 보복성 조치에 대한 강력 반발



위시하여 50여개 교단이 이미 WCC를 적그리스도 단체로, 이단 단체로 규정하고, 또한 WCC 총회 한국유치를 반대해 왔음에도 이 대회를 유지한 장본인인 김삼환 목사가 말로 이단 협력자요 이단 동조자요 친 이단 인사라 할 것이다.

그리고 예장(합동)에서 삼신론과 월경임태론은 금세기 말에 가장 ‘개혁신주의 신앙에 반하는 이단’이라고 결정하고 그를 옹호하는 교단이나 단

체인, 개인 등 모든 세력들과 교류를 금지한다고 밝힌바 있다. 그런데 예장(통합)에서는 한국교회와 아무런 의논이나 사전 등의 없이 신성모독을 한 월경임태론자를 기속적으로 이단 해제 하였다. 이같은 행동의 배경에는 예장(통합) 총회에서 김창영 목사가 삼신론 이단 결정이 해지된 바 없다고 주장했다가 최상경으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으나 8월 30일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아 수세에 몰렸기 때문이라는 측면도 있다. 또한 교단 대내외적으로 몰린 상황을 어떻게 해서라도 면피하고 한국교회를 속이기 위하여 명망 있는 교계 지도자들을 향해 이단 연루자라고 남발한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아울러, 예장(통합)은 종교 다원주의요 혼합주의며 융공주의인 WCC 총회 유치에 앞장선 교단인 만큼 한국교회 지도자를 향해 이단 연루 운운하며 논할 자격이 있는지 자문해야 할 것이다. 이미 예장(통합)은 연합사업의 틀을 깨버리고 한국교회 안에서 고립되기를 자처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남을 정죄하기 이전에 이단을 해벌해 준 예장(통합)이 먼저 철저히 뼈를 깎는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거듭나기를 충고한다. 또한 이단연루자 남발로 인해 훼손된 명예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강구할 것임을 밝힌다.

특히 WCC는 보수주의 신앙도 개혁주의의 신앙도 아닌 종교 다원주의를 신봉하는 단체이다. WCC는 종교 다원주의요, 종교 혼합주의요, 공산주의를 지지하고 협력한 단체이고, 특별히 개종 전도 금지주의 협의체라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보수·개혁주의 신앙에서는 WCC 단체가 바로 적그리스도요 이단 단체인 것이다.

이러한 WCC를 한국에 끌어들이는 핵심교단이 예장(통합)이 아닌가. 그러므로 이교단이야말로 이단 동조자이고 친 이단교단인 것이다. 뿐만 아니라 예장(합동)을

내겐 일사각오가 있을 뿐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의 마지막 설교

“그리스도의 사람은 살아도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죽어도 그리스도인답게 죽어야 합니다. 죽음이 무서워서 예수를 저버리지 마십시오. 풀의 꽃같이 시들어 떨어지는 목숨을 아끼다가 지옥에 떨어지면 이보다 더 두려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 번 죽어 영원한 복락을 얻는다면 이보다 즐거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더럽게 사느니 차라리 죽고 또 죽어 주님 향한 정절을 지키려 합니다.

나에게는 일사각오가 있을 뿐입니다. 소나무는 죽기 전에 짙어져 푸르고 백합도 시들기 전에 떨어져야 향기롭습니다. 이 몸도

시들기 전에 주님 전에 제물이 되겠습니다.

죽기를 각오한 사람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순교자 주기철 목사가 죽음을 각오하자 세상은 그를 감당치 못했습니다. 세상은 그의 목숨을 가져갔지만 그의 신앙은 꺾지 못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아는데 그치지 않고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실천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행동하는 믿음은 제자의 참모습입니다.

교회의 참 모습은 사라져 가고 점점 어두워지는 이 시대에 빛을 비추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바라건대 한국교회의 언론도,



한국교회에도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더욱 많아지길 기도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학교(Westminster Theological Seminary) 신학생 모집



지망생에게 드리는 글

현대는 새로운 세기와 급격한 변화의 세계화라는 물결 속에 접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따라서 그동안 굳게 지켜왔던 전통적 가치들이 험악이 무너져 내리는 대변혁의 시대가기도 한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웨스턴 총회 직영신학교로서 ▲ 개혁신앙에 입각한 학문의 정통성을 학습하여 시대적인 변화에 대처하고 ▲ 영적 혼란의 시기를 승리로 이끌기 위하여

성경진리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통찰력을 소유하게 하며 ▲ 세상의 참된 자유와 소망을 전하는 영적 지도자를 배출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뜨거운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고, 미래 지향적인 다양한 훈련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또한 세계화의 추세에 맞추어 6대주에 활용할 수 있는 선교사역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국내외의 저명한 신학자들을 교수로 초빙하여 심도 있는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편리한 교통과 각종 장학제도는 모두에게 드리는 혜택이기도 합니다. 부디 이곳을 통하여 주님의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가며 함께 기쁨을 누리시기를 기원합니다. 본교를 향한 여러분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분명 여러분은 사명감이 충만한 능력 있는 일꾼으로 성장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학장약력 ◆웨스트민스터신학교 학장 ◆사단법인 기독교학원 이사장 ◆세계기독교인 선교회 회장 ◆글로벌 평생 교육원 원장 ◆국제기독교지도협의회 총재 ◆전원종교지도자협의회 회장 ◆저서 성경개론 외 다수

설립 목적

본교는 신구약 성경은 정확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며, 신앙생활의 유일한 법칙으로 믿고, 보수적 개혁주의 신앙의 정통성에 입각한 초교파 신학교로써,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세계선교와 목회사역 및 지도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할 참신한 일꾼을 양성함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제출 서류

①입학원서(본교양식)1통 ②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통 ③주민등록등본 1통 ④여권사진 3매 ⑤편입생은 성적증명서 1통 추가

특 전

· 본원 소속교단으로부터 남, 여 목사인수를 받습니다.
· 성적 우수자 및 신앙심이 투철한 자에게 각종 장학금혜택 제도가 있습니다.

전형 안내

· 전형기간 : 12월 ~ 2월(봄학기), 6월~8월(가을학기)
· 전형방법: 서류전형 / 신앙면접

모집 학과

과 정	학 과	기 간	자 격	비 고
학 부	신 학 과	8 학 기	고졸 및 동등이상 학력의 세례교인	목회자 및 연구과정
	선교학과			선교사 준비
	상담학과			각계에서의 상담활동
	무용학과	6 학 기	중졸 및 동등이상 학력의 세례교인	댄싱워십 선교 및 다양한 활동
통신과정				
별도 상담에 의하여 과정 및 학기를 결정함				
대학원부	상기의 전학과	M.Div.6학기 기타 4학기	학부 과정을 필한 자	목사안수 및 지속적 학문연구
학 술 원	해당학과	4~6학기	면접 및 심사 후 해당 학위 가능한 자	권위 있는 해외 신학교와 연계하여 과정을 이수함.
편 입 생	각 학 과	1~3년	타 신학교 중퇴 또는 이수자 혹은 통신과정 후 편입가능	편목과정은 별도로 있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누는 이부가 되게 하리라”(막1:17)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 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사6:8)

이번학기 교수진

정기환교수(조직신학) : (D.R.E., Th.D.)延世大學校 教育大學院 (美)Trinity Theological Seminary
장광용교수(고대근동학) : (Ph.D.)(漢)University of Sydney (美)University of London
이현우교수(이스라엘역사) : (Ph.D.)서울大學校大學院 (美)Columbia University
권맹철교수(변증학) : (Ph.D.)서울大學校大學院
Torch Trinity Graduate School of Theology
정철성교수(구약신학) : (Th.D.)(獨)Ruhr-Universität Bochum
임필환교수(교회정치) : (Ph.D.)(美) School of Bible Seminary
최병관교수(비교종교학) : (Th.D.)(美) Life University
박광호교수(주교교육) : (D.S.M.)Canada Christian College
박종철교수(목회상담학) : (Th.D.)長老會神學大學校大學院
박종철교수(가정상담학) : (D.C.C.)Canada Christian College
이우금 교수(MBTI) : (Ph.D.)이화여자 대학교, 피어선신학 대학원 대학교
박상국교수(교회음악학) : (D.S.M.)Canada Christian College
안병삼교수(교회행정) : (Th.D.)Canada Christian College
이화순교수(선교학) : (D.D.)美Reformed Theological Seminary
정현모교수(선교언어) : (中)中國南京大學校, 韓國外國語大學校大學院
Charles McVety(교회사) : (D.Lit.)St.Petersburg State University
John Wesley Tobey(히브리어) : (Th.D.)University of Toronto
Rondo Thomas(조직신학) : (D-CPC)Canada Christian College



정통신학의 요람 Westminster Theological Seminary

웨스트민스터신학교

● 주소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617-4
※부개역 2번출구 송내역 방향 200m 지점 대평프라자 5층
※주차장은 건물 뒤편으로 오시면 지하주차장으로 들어 오실 수 있습니다.

● 대표전화 : 032)323-5552, FAX : 032)322-0099
● H·P : 010-2956-9191 야간 : 032)321-9109
● E-mail : Keyone209@hanmail.net

기독교계, 불교 혼란 공작행위 분쇄한다?



한국교회연합회

불교의 최대 종파 조계종의 호법위원회는 9월 18일 거창하게 '기독교계의 불교 혼란 공작행위 분쇄'를 위한 긴급 기자회견'을 조계사에서 하였다.

그 사연인즉, 지난 9월 18일 중앙일간지인 경향신문에 '부처님을 찾는 사람들의 모임'과 조계종 전 호법부의 상임 감찰이었던 성호 승려 이름으로 "자정능력 상실한 조계종, 막가파식 승가를 정화하자"는 성명서에서 기인한다.

그 내용은 불교 신도들에게 받은 시주금으로 일부 중진 승려들의 도박, 고금양주 음주, 매춘 등 일에 담기조차 곤란한, 타락상에 대한 것을 정화하고 개혁해야 한다는 성명 내용이다.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떠나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부끄러운 모습이 있다면 이를 고쳐야 한다는 질타인 것이다. 이것은 불교 내부의 자정의 목소리로 기독교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다.

그런데 왜 조계종 호법부는 기독교가 불교를 혼란하게 하고 있으며, 듣기에도 살발한 '분쇄'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인가? 그 이유인즉, 성명서 하단에

후원계좌 번호가 있는데, 이것이 엄 모 변호사 사무실의 계좌 번호라는 것이다. 그리고 엄 모 변호사가 소망교회에 다니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기독교에서 불교계를 혼란하게 하는 공작(?)을 벌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를 두고서 불교언론인 불교신문은 18일 "중단비판 불교단체, 실체는 개신교인이 후원계좌 주인"이란 제목으로 보도하고 있고, 같은 불교계 언론 법보신문은 "조계종 공격에 극단적 기독교계 결합했다"라는 제목으로 마치 기독교계가 불교계를 와해시키기 위해 공작한 것이 사실인양 보도하고 있다.

그러나 9월 19일 당사자로 지목된 엄 모 변호사는 조계종 기자회견에 대한 답변을 냈는 바, 본인은 성호 승려의 소송업무 대리인이며, 본인이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불교혼란 공작행위'를 주장하는 것은 조계종 내부의 치부 문제를 두고 논점을 변경하려는 치졸한 행위라고 강하게 반박하고 있다.

또 본인은 소망교회를 출석하지 않고 있으며, 계좌 번호가 들어간 것은 변호사 수입료를 주겠으니, 통장 계좌 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여 알려준 것뿐이라는 입장이다.

그리고 기독교인인 엄 모 변호사가 불교 내부 문제를 비판하는 '부처를 찾는 사람들의 모임'에 들어갔다는 주장에

대하여, 엄 모 변호사는 동의한 적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그렇다면 이 소송에 엄 모 변호사를 선임한 이유에 대해, 이 모임의 대표이자 모 대학 교수인 강 모 대표는 '소송 대리인으로 객관적이고 정의로운 변호사를 물색 중 인권변호사로 알려진 엄00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게 됐다'고 밝히고 있다.

불교계 내부 일부지도층의 도박 문제는 올해 5월에 언론에도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었던 만큼 그 사실 모두를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런데 그런 내부의 문제와 결부하여, 기독교를 공격하고, 공작의 주동으로 끌어들이려는 조계종의 시도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기독교계는 그간 불교계 인사들의 믿기 어려운 내용의 폭로전에 대하여 언론으로부터 논평을 요구 받았을 때에도, 한 마디도 거부하면서 그 이유를 '이웃 종교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기독교계 내부의 문제는 기독교계가 스스로 자정노력을 기울여야 할 불교계 역시 불교계 내부 문제는 스스로가 해결할 문제라는 것이 기독교계의 일찌던 견해로 관심 밖에 일임에도 불구하고, 불교계는 그들의 내부의 문제를 외부로 전가시키려 한다. 그러나 이것은 해결방법으로 옳지도 않을뿐더러, 정직하지도 않다고 본다.

지금까지 불교계는 2008년 범불교

대회를 통해 '기독교에 의한 종교 편향'을 주장했으나, 근거 없는 내용들이 많았다. 그 이후 불교계는 정부와 막후 접촉을 통해 국민의 세금에서 막대한 국고를 지원받았고, 조계종의 종교평화위원회의 이웃 종교간 상호 존중과 발전을 지향한다고 하면서, 기독교를 공격하는 일에 우선하였다. 또 지난 2005년 이후로 기독교 공격에 앞장선 불교 단체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을 지원한 사례들도 있다.

그런가 하면, 안티기독교 운동에 불교계 인사들이 포함되어 있고, 이 땅에서 기독교를 박멸하는 것을 목표로 삼은 단체를 설립한 김 모 씨가 또 다시 설립한, 종교비판자유실현시민연대나 종교법외법추진제정시민연대에 불교계 인사가 다수 포함 된 것도 볼 수 있다.

조계종의 이렇듯 반기독교적이고, 종교 폭력적인 행위는 지탄받아야 하며, 이번에도 근거 없이 '기독교계가 불교를 혼란하게 하는 공작을 했다'고 기자회견한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사과를 해야 한다. 그리고 종교간 갈등과 평화를 깨는 어떤 행동도 다시 하지 않겠다는 재발방지 약속도 해야 한다.

<경향신문에 실린 불교관련 비판 성명서 내용> <불교신문에 실린 기사-기독교가 불교 혼란 공작행위를 한 것으로 보도> <법보신문에 난 기사-조계종 종평위의 성명서>

조용기 목사, WCC 반대

한기총지지 성명발표, WCC는 종교다원주의

"한국교회 전통 중심 잡기 위해" 신앙관 공개



여 의 도 순복음교회 원로인 조용기 목사가 중앙일보와 동아일보에 이어 국민일보 미션에도 연일 한기총 지지 성명을 발표했다. 또 조 목사는 이 성명에서 그동안

지지는 입장을 취해온 WCC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피력,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조 목사는 25일 주요 일간지 광고로 '저의 신앙관을 공개합니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그는 이 성명에서 "요즘 WCC 문제가 한국교회 신앙의 혼선을 가져오고 저에게도 많은 질문이 쇄도하고 있다"며 "그동안 저의 소견을 밝히지 못한 것은 전 세계에 있는 친구들과 동역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민한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한국교회의 전통적인 신앙이 중심을 잡고 발전하기 위하여 1,200만 성도, 5만 교회, 그리고 10만의 동역자들에게 저의 신앙관을 공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WCC는 종교다원주의, 동성결혼 허용, 공산주의를 포용하며 다양성을 위장하는 혼합종교 성향이지만, 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강조하는 성서적 삼위일체 신앙을 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 목사는 한기총에 대해서도 "23년 전, 고 한경직 목사, 본인과 교회 지도자들이 반공과 보수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세운 대표적 연합기관, 한기총(현 대표회장 홍재철 목사)을 전국 교역자들과 성도들은 한국기독교가 세계의 중심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고 밝혔다.

한편 이 성명은 조용기 목사와 김성광 목사(강남교회 담임) 공동 명의로 발표했다.

저의 신앙관을 공개합니다
요즘 WCC 문제가 한국교회 신앙의 혼선을 가져오고 저에게도 많은 질문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의 소견을 밝히지 못한 것은 전 세계에 있는 친구들과 동역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민한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한국교회의 전통적인 신앙이 중심을 잡고 발전하기 위

하여 1,200만 성도, 5만 교회, 그리고 10만의 동역자들에게 저의 신앙관을 공개하고자 합니다.

1 기독교 전통의 보수신앙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저는 100년 전부터 우리나라에 온 영미 선교사들과 신사참배를 거부하다 순교한 선배들의 보수주의 신앙을 계승하고 있습니다.

2 종교 다원주의를 거부합니다.
WCC는 종교다원주의, 동성결혼 허용, 공산주의를 포용하며 다양성을 위장하는 혼합종교 성향이지만, 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강조하는 성서적 삼위일체 신앙을 전하고 있습니다.

3 종북좌파와 공산주의를 배척합니다.
북한의 공산주의는 적화통일을 하고자 6.25 한국전쟁을 일으켜 수백만명을 살상하고 수천의 교회를 파괴하였고,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침략하기 위해서 간첩들과 종북좌파 세력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산주의를 추종하는 종북좌파 세력을 배척합니다.

4 이단종파와 미신을 제거해야 합니다.
저는 전국에 퍼져있는 이단세력과 미신을 과감히 정리해야 기독교가 선진국을 목표로 하는 국가적인 사명을 다한다고 생각합니다.

5 한국기독교총연합회를 지지합니다.
23년 전, 고 한경직 목사, 본인과 교회 지도자들이 반공과 보수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세운 대표적 연합기관, 한기총(현 대표회장 홍재철 목사)을 전국 교역자들과 성도들은 한국기독교가 세계의 중심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2012. 9. 25
•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명예회장, 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목사 조용기
• 전국구국교회 대표, 강남금식기독원-강남교회 원장목사 김성광

과거와의 전쟁은 역사파괴 범죄 행위

인혁당 사건에 대한 논란의 소지는 다분하다

[WHO CONTROLS THE PAST, CONTROLS THE FUTURE. WHO CONTROLS THE PRESENT CONTROLS THE PAST.] - George Orwell 1984 -

지난 문민정부 5년과 좌파정권 10년에서 김영삼(YS)은 군사독재정권을 방자한 정치보복으로, 김대중(DJ)과 노무현은 언론과의 전쟁과 국보법폐지 투쟁, 반미정서 심화, 대북 퍼주기 등을 통해 종북의 확산과 정착, 과거와의 전쟁을 통해서 기존의 가치와 질서를 철저히 파괴했다.

먼저 YS는 대법원 판결을 뒤집은 것은 물론, 헌법상 소급입법금지 원칙마저 무시하고 5.18 특별법을 제정, 신군

부세력을 소급 처벌, 사법을 도구화 했다. DJ정권은 언론과의 전쟁을 통해서 역사파괴의 기초를 다지고 노무현이 과거사 범으로 공안사건을 뒤엎었다.

특히 2000년 8월에 구성된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는 기존의 판결을 무시 반국가 이적단체, 주사파 조직원, 공산혁명 운동가, 간첩 전력자 등 노골적인 친북반역행위자들을 민주화 운동가로 결정 명예회복 및 보상을 함으로서 사법체계를 무너트렸다.

일개 총리실 산하 민보상위가 사법부 확정 판결을 받은 남민전 사건, 중부지역당 사건, 부산동의대살인방화 사건, 간첩 전력자, 범민련, 한총련 가담자

등 사건에 대해서 충분한 증거에 의한 재심도 거치지 않은 채 행정명령으로 뒤집어엎은 초법적 탈법행위를 자행한 것이다.

민보상 위원회가 민주화운동으로 결정된 대부분의 사건이 보는 시각에 따라서 논란의 소지는 얼마든지 있다고 본다. 특히 동대 경찰관 7명 방화 살인범 민주화 인정이나 "유신에 의한 최대의 사법살인"이라는 비난을 받는 인혁당 사건에 대한 논란의 소지는 다분하다.

역사적 평가가 끝나지 않은 시국관련 사건은 새로운 증거 발굴과 철저한 사실규명으로 재평가를 마무리 지어야 함은 물론이다. 그러나 이 부분을 정당

이나 정파 또는 정치인이 일시적 정쟁의 도구로 삼기보다는 역사학자의 항구적인 탐구 분석 평가에 맡기는 것이 옳다.

사건의 관련자와 이해당사자들이 생존해 있는 근현대사에 대한 평가는 특정 정파나 계층의 이해와 관련 졸속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 예컨대 193명의 5.18 사망자 중 무연고 시신 13구에 대한 의문규명은 특정 정파나 계층관련 정쟁이 아니라 역사 재평가의 몫인 것이다.

박근혜가 18대 대선 여당 후보로 확정되자, 야권과 종북좌파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5.16 혁명과 유신에 대한 시비 재연에 혈안이 되고 있다. 이는 역사를 투쟁의 도구로 삼는 종북 반역세력의 비열한 수법 그 자체이다. 과거사를 정쟁에 이용함은 역사파괴 범죄가 될 수 있다.

논설위원 백승목 대기자
hugeline@hanmail.net

세계최초 PC형 완전 칼라주보인쇄기

8.5인치 대형 스크린

대용량 잉크로 대량생산
잉크(4EA) 이외에 별도의 소모품이 필요 없습니다.

FORCJEC엔진사용 분량최대150매
고정 직렬 헤드로 세계최고 150ppm
정당 잉크비 20원 (20%저렴)

ADF옵션
2단 4면, 3단 6면, 4단 8면
대 사이즈, 주보까지

최대적재 용량 2,500매

- ★ **세계 최고의 속도**
분당 150매
시간당 9천매 생산
⇒ 작업시간단축
- ★ **저렴한 칼라비용**
컬러유지비 80%절감
⇒ 장당 20원 (20%원고)
- ★ **슬림하고 컴팩트한 디자인**
⇒ 사무환경 최적화
- ★ **Flexibility**
최대 548mm 인쇄
⇒ 다양한 출력물제작

- ★ **High Speed**
150매/분 (9천 매/시간)
⇒ 작업시간단축
- ★ **One Pass Two Color**
드럼2개 동시장착
⇒ 동시 3도 인쇄
- ★ **Color Performance**
1칼라추가로 인지도 향상
⇒ 풀 칼라 구현 효과
- ★ **Flexibility**
최대 291X412mm
(카드, 봉투, 엽서)
⇒ 다양한 처리능력

세계최초 PC형 3도 칼라주보인쇄기

고생산성 (High Speed)

- ① 분당 150매의 고속출력
- ② 3도 양면주보 500부 인쇄시간 9분
- ③ 칼라드럼 교환 없이 동시 3도 인쇄
- ④ 고속, 낮은 코스트로 시간 비용 절약

고해상도 (High Quality)

- ① 600dpi의 고 해상도 출력
- ② 이미지 및 작은 글씨도 선명
- ③ 독자 3도 인쇄기술로 칼라인쇄
- ④ 최대 인쇄 사이즈 291X412mm, 용지 46-210g/㎡

세계최초! 세계최저!!

600~700만원 하던 기계를...

200만원대 출시기념!

가격은 흑백! 품질은 칼라!

이미 2,000여 교회와 사용하고 있습니다.
A3를 한번에 자동으로 양면을 컬러/흑백, 복사/프린트/스캔 가능한 슈퍼 복합기 ₩6,600,000

₩2,990,000

컬러 복사기, 주보 인쇄기, 양면 (음성), 팩스 (음성), 흑백 복사기, 흑백 프린터, 스캐너, 휴대 복사기, 휴대 프린터

PC형주보인쇄기 비용절감 90% 처리속도 100배!!

최고 90% 이상의 비용절감과 재빠른 인쇄기·복사기·프린터기 기능을 동시에 한대로 갖춘 고품질! 뛰어난 내구성과 고해상도의 다양한 컬러인쇄!!

2011년 신제품출시

세계 최초 1m 20 출력

주보 2단 4면, 3단 6면, 4단 8면(복사, 출력) 가능

인쇄 + 복사 + 스캔 + 팩스 = 하나로

동급 최고의 인쇄 속도를 지원하는 ₩1,595,000

컴팩트한 디자인의 주보용 컬러 레이저 복합기 ₩890,000

동결제본 & 접지기
B6-A3까지 출력제본 접지
1장 이상의 주보, 교재, 책자 등 20매 80매까지 가능

주보접지기
2, 3, 4단 주보 한번에 접지
접히는 간격조정 가능
분당 120매 접지

주보 인쇄기 보급 5,000대, 전자동 디지털 컬러 주보 복합기 2,000대 기록 달성! 영광기업을 사랑해주신 교회와 목사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영광기업 대표이사 장영락 정로
H·P : 010-5779-0691, 010-3651-8572

주식회사 영광기업 1588-0691
Glory Enterprise Co., Ltd. www.juboll4.com

종로전시장 ※50여종의 기계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종로구 효자동 51-3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앞)
Tel, 02)764-5890~2 Fax, 02)764-5893 공강, 032)551-4114

예장웨신 제97회 총회 이재갑 목사 총회장 당선

부총회장 장창운 목사, 허성인 목사 선출



대한 예수교 장로회(웨신)총회(총회장 성홍경 목사)는 지난 9월 13일 오전 11시 서울시 종로구 연지동 1-1 여전도회관 2층 루이스홀에서 “새롭게 도약하고 비상하는 웨신”이란 주제로 제 97회 정기총회가 개최되어 이재갑 목사(사진·빛과소금교회)를 총회장으로 만장일치 선출했다.

김춘택 목사(부총회장) 인도로 진행된 1부 예배에 장창운 목사(서기)가 기도를, 박영남 목사(회의록서기)가 담후 4:8절을 병독하고, 총회장 성홍경 목사는 “몇 가지 질문”이란 제하의 말씀을 선포했다.

이어 특별기도에서 1.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정성택 목사(한남노회장), 2. 총회와 노회, 지 교회를 위하여 정기환 목사(중앙노회장), 3. 신학교를 위하여 심순범 목사(동서노회장)들이 나섰다.

이어진 2부 성찬예식이 이 규 목사 집례로 분병위원 김학기 목사, 정태종 목사, 분찬위원 장해순 목사 김혜숙 목사 등이 맡았으며, 집례자 이 규 목사 축도로 마쳤다.

이날 예장(웨신)총회 제97회 정기총회에서 신임 총회장에 선출된 이재갑 목사는 “한국교계의 표준총회를 추구하는 총회임을 소개하고, 총회로부터 부여받은 중차대한 사명감으로 총회가 양적, 질적으로 부흥발전하고 총회원들의 자긍심과 비전을 성취하는데 총회원들의 뜻을 모아 힘써 일할 것을 다짐하면서 교세확장과 목회자 재교육에 심혈을 기울이고, 개교회에 전도운동을 일으켜 영혼구원에 힘쓰겠다”는 소감과 함께 포부를 밝혔다.

이날 웨신총회는 부총회장 장창운, 허성인 목사, 서기 조강수 목사, 부서기 정기환 목사, 회의록서기 김안식 목사, 부회의록서기 유윤주 목사, 회계 이영풍 목사, 부회계 양덕신 목사 등이 선출되었다. 이어 이 규, 이이중 목사 등이 감사로 선임되고, 신인장 목사가 총무에 재 임존을 받았다.

이어서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대학



교 한동숙 이사장의 축사와 이호일 부총장의 학교보고 및 광고와 기획처장 김성욱 교수, 웨민신교회 박우재 교수 등의 인사말이 있었다.

웨신총회는 이날 제97회 정기총회에서 8개 노회의 영입과 4곳의 지방신학교를 총회 인준하는 등 최근의 교세확장과 교단발전의 기틀을 확실하게 다지면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백서와 성경적인 신앙과 개혁주의 신학노선의 토대위에서 바른 교회를 설립하고 열방의 영혼들을 살려낼 뿐만 아니라 한국교회의 위상을 회복하며 교계의 표준총회를 만들어 나가자며 뜨겁게 기도했고 제97회기를 교단이 새롭게 도약하고 비상하는 교단부흥 원년으로 삼는데 뜻을 모았다.

또한 총회는 총회본부건립을 위한 총회본부기금조성위원회를 임원회에서 구성하여 시행할 것을 위임하고, 제97회기에서 보다 획기적인 사업을 위해서 필요시에 목대원준비위원회, 신학위원회, 교세확장전권위원회, 윤리위원회, 헌법개정위원회를 필요시에 임원회에서 구성하고 시행하도록 위임했다.

피종진 목사 10월 국내·외 성회 일정



피종진 목사

1(월) ~ 4(목)	부산 감림산기도원(원장 이옥란 목사) ☎ (055)375-0831
6(토) 오전	대한예수교장로회(국제) 목사안수식 ☎ 010-2396-4590
8(월) 오전	기독교연합회관, 민족복음화중앙본부 부흥사역수원
8(월) ~ 10(수)	부산 남도교회(박세광 목사) ☎ (051)897-0151
11(목) 오전	대한예수교장로회(천안) 목사안수식(여전도회관)
11(목) ~ 12(금)	서울 개포소망교회(연인애 목사) ☎ (02)573-7797
13(토) 오전	화정명성교회(박명순 목사) ☎ (031)968-9191
15(월) ~ 16(화)	서울 글로벌신우센터 서울제단(원장 강은숙 목사) ☎ 010-6358-8999
16(화) 저녁	서울 서대문 소망교회(조병우 목사) ☎ 011-9013-0693
17(수) 저녁	인천 사랑밭교회(권태일 목사) ☎ (032)502-7770
19(금) 오후	총회연합신학교(총장 피종진 목사, 학장 박종두 목사) ☎ (02)3666-1177
22(월) ~ 23(화)	전국목회자사모세미나, 주최 : (사)순세계복음선교회(이사장 피종진목사) 장소 : 새중 평화의동산부원장 이성자 사모 ☎ (041)852-2211
22(월) ~ 24(수)	군산 호평산기도원(원장 김사라 목사) ☎ 070-4235-3528
24(수) ~ 26(금)	서울 면목중앙교회(유광석 목사) ☎ (02)434-4715
28(주일) 오전	수지 화광교회(윤호근 목사) ☎ (031)281-9192
29(월) 오후	양평금식기도원(원장 엄기호 목사) ☎ (031)772-9113
29(월) ~ 31(수)	제174차 해외성회(174th Overseas Assembly) 필리핀(Philippines) 다바오(Davao) 선교사세미나, 평신도연합성회 ☎ 070-8200-0042

대한예수교 장로회 남서부총회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186
010-5255-7777
jongjin777@gmail.com
TEL : (02)3411-9191
FAX : (02)401-7770



수빅양문비전교회와 IRTS 설립감사예배 드려

필리핀에 있는 목회자와 청년들에게 제대로 된 신학을 가르쳐 목회와 한국 선교사들과 동역할 수 있도록 국제개혁신학대학교(이하 IRTS: International Reformed Theological Seminary)와 양문비전교회(권오윤목사 시무, 성남소제)의 해외 지교회인 수빅 양문비전교회의 설립감사예배가 지난여름 필리핀 수빅 SBZF에서 진행되었다.

1부 설립감사예배는 김동역 선교사(수빅양문비전교회 담임교역자)의 사회와 이경철 선교사(IRT S 교무과장)의 통역으로 시작되어 조진석 장로(양문비전교회)의 기도, 김인자 선교사(총부루트선교사협의회 여교역자 증경회장)의 성경봉독(행 20:22-24), 안병렬 안수집사(수빅양문비전교회)의 색소폰 특주에 이어 조용할 목사(예장백석 세계선교위원회 선교

위원장)는 사도행전 20장 22절로 24절을 주제로 ‘사명’이란 제하의 말씀을 선포했다.

해외 선교지에 바른 신학교육을 통한 목회자 양성에 헌신을 다해 온 권오윤 목사(IRT S 이사장)는 경기도성남양문비전교회의 선교비전을 이루기 위해 아픈 몸이지만 사명에 불타는 모습에 감동을 받았다. 권 목사는 또 필리핀에 수많은 사역

자 양성을 위해 이날 설립되는 신학교와 교회를 통해 예장백석총회 교단의 위상을 높이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선포하는 메시지에 원근 각처에서 모인 많은 이들이 감동을 받았다.

권오윤 목사에게 의해 교회설립선포 선언에 모두가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며, 교역자 파송식에서 김동역 선교사와 염혜정 사모에게 파송 및 임명패를 수여했다. IRT S 학교설립 및 교직원 임명식에서 총장 정인찬 박사(추대), 학장 최현기 박사, 행정실장 김동역 목사, 교무과장 이경철 선교사, 학생과장 내리 목사,

회계과장 염혜정 간사가 각각 임명되었다.

교수진은 Paul kwon(D. Min), In Chan Chung(Dean Of Beakseok Univ.), Kwang Dol Baek(D. Min), Jai Ryong Ryou(Ph. D), Gil Won Park(Ph. D), Min Suck Kim(D.D), Sang Chul Yoon(D.Min), Chan Ho Lee(M.Div), Hyun Kee Choi(D.D), Jun Sik Kim(Ph. D), Hye Sung Han(Ph. D), Seog Gil Kong(Th. M In PT), Young Shin Kim(M. Div), Ki In Kim(Hon. Ph. D), Moowoong Woo(M. Div) 총 15명이 임명되었다. 김홍수 목사(세계선교위원회 서기)와 나춘근 선교사(백석선교지부 직전지부장) 격려사에 이어 신승욱 성도의 ‘You raising me up’ 축가가 있었다.

축사에는 임인기 목사(세계선교위원회 총무), 강중희 선교사(백석필리핀선교지부 지부장), Dir. Anne Marie C. Gordon(Subic 시장부인, 차기 수빅시장 출마예정자), Senior Pastor, Jose Lee Victoria(OCMA Chairman), Hon. Bong Gordon(수빅 시장)이 축하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후주 안수집사(양문비전교회 선교위원장)의 봉헌기도와 권민호 전도사(양문비전교회 전도사)의 봉헌찬양과 김동역 선교사의 인사말씀에 이어 백석총회 세계선교위원장이 조용할 목사의 격려금 전달식과 아울러 최현기 IRTS학장의 축도로 설립감사예배를 마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점심 식사 후 2부 세미나에는 이경철 선교사(IRT S 교무과장)의 사회와 통역으로 내

리 목사(IRT S 학생과장)의 기도 후, 김홍수 목사(세계선교위원회 서기)의 ‘개혁주의 생명신학’ 강의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 바로 나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면서 육중한 몸을 팔필 뉘면서 열강을 했으며, 이경철 선교사도 강사의 행동을 똑같이 따라하며 통역을 하자 학생들의 반응이 아주 뜨거웠다.

임인기 목사(세계선교위원회 총무)의 ‘목회자의 자질’이라는 주제 강의를 통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 그리고 가족, 대인간의 관계의 중요성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다’는 목회 현장의 간증이 학생들에게 큰 도전이 되었다.

3부 토의와 질의 시간에 권오윤 목사(IRT S 이사장)는 학교운영과 모집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조용할 목사(세계선교위원장) 앞으로 신학교 비전과 교단과의 깊은 유대관계 속에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한국에서 계속 연장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위해 힘을 더이니 최선을 다해 달라는 격려의 말씀과 이경철 선교사의 기도로 모든 과정을 마쳤다.

이번행사에 예장백석총회 세계선교위원회 위원장과 임원, 필리핀선교지부장, 수빅시장과 이사, OCMA회장 등이 순서를 맡아 주었으며, 지부선교사, 동역자, 한국과 원근 각처에서 참석해 준 모든 이들, 또한 물심양면으로 헌신을 다한 양문 비전교회 당회장, 당회원들, 성도들이 자리를 같이 했으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 드렸다.

- 한글 개역성경은 개판(改版) : 개정(改正)은 개악(改惡)이다.『하나님의 말씀 바른성경』은 개악의 거짓말 성경이다.
- 한국기독교가 개독교 라는 비판의 소리를 듣게 된 것은 개악 개정판 성경의 오류 때문이다.

바른성경 찾는 일이 최우선 교회가 사는 길이다

WCC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

WCC는 1959년 하나의 한국장로교회를 합동과 통합으로 분열시킨 주범이다. 이 영향으로 인해 하나의 성결교회도 기성과 예성교 분열되었다. 그 후 반세기가 지난 오늘 WCC는 제10차 세계대회(2013년)한국 개최로 인해 한국기독교총연합회를 돌로 분열되게 했다. 그것은 WCC가 종교다원주의, 종교혼합주의, 융공주의 등 반성경적인 적그리스도적 운동으로 순수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과 일치라는 미명아래 카톨릭적 음모로 하나의 교회를 파괴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엄숙한 경고는 다음과 같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들과 더불어 공평하지 않게 명에를 같이 메지 말라. 의와 불의가 어찌 사귀겠느냐?
빛과 어둠이 어찌 친교를 나누겠느냐?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일치하겠느냐?
혹은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무슨 몫을 나누겠느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들이 어찌 조화를 이루겠느냐?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리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고 그들 가운데 거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니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가운데서 나와 분리하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받아들이며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아들 딸이 되리라. 전능하신 주가 말하노라. (고후6:14-18)

- 켄제임스 홀명역 -

AVA 바른성경선교회

경기도 남양주시 금곡동 경춘로 855-37

신간안내 : AVA 토라 대강해 설교전집

손기태 목사 목회50년(회년) 기념도서

- 총 3,570면(각권 평균 350면, 10권 분량)
- 1988년부터 20년 동안 저술한 대작.
- 죽자 온전 영감본에 근거한 토라 강해 설교집으로는 한국 최초의 저서.

책 내용

- 1 처음에(בְּרֵאשִׁית, 베레쉬트)
創世紀 創世論(신국판 양장, 750면)
처음에 빛(창복)으로 시작하고, 50편의 요약설교와 십자가의 축복원리
- 2 이름들(שְׁמוֹת, 쉬모트)
出애굽記 救災論(신국판 양장, 845면)
이름들을 택하시고, 88편 강해설교
- 3 그가 부르셨다(וְיָקָרָה, 와이크라)
레위기記 聖潔論(신국판 양장, 606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부르셨다 79편의 강해설교
- 4 광야에서(בְּמִדְבָּר, 베미드바르)
民數記 奉事論(신국판 양장, 665면)
광야에서 40년 연단 받고, 83편의 강해설교
- 5 그 말씀들(וְכִלְמָה, 하드미렐)
申命記 말씀論(신국판 양장, 702면)
다시 그 말씀들을 강론하다. 110편의 강해설교 (정가 124,000원)



손기태 신학박사

- 계좌번호 -

- 농 협 : 100034-52-229591
 - 우체국 : 011866-06-004015
- 바른성경 출판사
예금주 : 손기태

AVA (Authorized Version Amen)



AVA 바른성경 출판사 마라나다 한빛교회

매주 수요일 요한계시록 수강생 모집

강사	손기태 신학박사 요한계시록 50년 연구, 저서 50여권 (계시록 10여권)
기간	10월 3일 ~ 12월 26일(13주) (오전 10시 ~ 오후 3시 까지)
장소	마라나다 한빛교회 경기도 남양주시 금곡동 경춘로 855-37
대상	목회자, 전도사, 신학생, 평신도 계시록에 관심있는 자임 성도 누구든지
등록	10월 3일 10시까지 소속교회 주보 1매 제출 등록금 무료, 교재대 각자 부담
교재	박사성경, 헬라어 표준원문(TR)과 영어 킹제임스 성경으로 대조한 <요한계시록 주해>, 일곱천사의 비밀, 종말의 징조, 계시록52주 구역공과, 개악은 개악이다, 성경으로 돌아가자 등 약20만원 준비.
선물	참석자 전원에게 '언약의무리' 1권씩 선물, 강사의 저서 모두 특별할인.

박사성경으로 성경박사가 되는 길 !

교통안내 : 경춘로 남양주 시청, 전철 금곡역, 차로 3분 거리

AVA 아카데미

TEL : (031) 592-7079 / FAX : (031) 594-3733